

울곡의 去就와 士의 節義

김혜숙*

서

공자는 去就에 대하여 자신을 규정하기를 '가함도 없고 가치 없음도 없다(無可無不可)'고 하였다고 한다.¹⁾ 맹자는 이를 해석하여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머무를 만하면 머무르고, 오래 있을 만하면 오래 있고, 서둘러야 할 만하면 서둘렀다'고 하였다.²⁾ 그리고 맹자 자신도 군자의 三就三去를 피력한 바 있다.³⁾

공맹의 이와 같은 거취관은 이후 유자의 거취의 전범으로 인식되었다. 時宜적절하게 거취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학문적 수양, 즉 도의 실천을 의미하는데 이는 의리를 존중하는 성리학자들에 의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실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퇴계도 울곡도 하서도 모두 이를 고민

* 충북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1) 論語 微子.

2) 孟子曰 孔子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 所謂無可無不可也(論語集註 微子註)

3) 陳子 曰古之君子 何如則仕 孟子曰 所就三 所去三 迎之致敬以有禮 言將行其言也 則就之 禮貌未衰 言不行也 則去之 其次雖未行其言也 迎之致敬以有禮 則就之 禮貌衰 則去之 其下 朝不食 夕不食 飢餓不能出門戶 君聞之 曰吾大者 不能行其道 又不能從其言也 使飢餓於我土地 吾恥之 周之 亦可受也 免死而已矣.

하고 나름대로 실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때 학계에서는 실학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절대 왕권과 가부장적 독선을 정당화하는데 이론적 거점을 마련해 주었다고 성리학을 질타한 바 있다. 소위 주자주의라는 용어까지 사용하였었다. 그런데 유교이념의 악용가능성은 紫色에 대한 공자의 혐오에서 이미 예견된 바 있었다.

道心은 멀고 人心은 가깝다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바 성리학이 추구하고 있는 도덕적 자기완성이 너무도 실현되기 힘든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 그러나 사이버적 악용의 존재야말로 오히려 성리학적 자기성찰과 실천궁행의 가치와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게 하는 바가 있다.

성리학은 도덕적 자기 성찰에 비중을 두었고 실학은 이용후생에 비중을 둔 것으로 운위되고 있지만 유교가 士(혹은 君子)의 궁극적 자기실현을 濟世 즉 保民에 두고 있는 한 성리학과 실학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공자가 강조한 仁이 맹자에 이르러 인간의 본성론으로 설파되면서 治者의 仁義란 결국 民의 恒産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확고한 주장이 이미 선명하게 제기되었고, 성리학이 이러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바탕이 되는 치자의 마음닦기와 실천 즉 도덕성 확립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만 사이버를 개탄할지언정 성리학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치자가 성리학적 자기성찰과 실천궁행을 외면할 때 결코 실학적 이용후생의 이상도 실현될 수 없다. 아니 그 둘은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이다. 治者와 그 輔佐가 도덕적 자세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이상적인 정치이론도 결국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

조선 성리학의 거봉이었던 율곡은 출사한 다음해부터 사직소를 올리기 시작했지만 기회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왕의 自修를 권면하였다. 아울러 조정의 기강 확립, 賢能의 임용, 군사 양성, 保民, 財用의 增産, 邊戩 堅固策, 戰馬의 준비, 백성의 교화 등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진언하였다. 율곡의 진언과 행적을 통하여 필자는 진정한 성리학자가 실학을 외면할 수 없음 보았다. 율곡전서를 閱讀하면 흔히 공리공론이라고 빈축을 사고 있는 성리학이 실은 도덕적 자기성찰의 당위적 신념을 구축하기 위해

理를 발견하려는 학문임을 알 수 있다. 理를 확신함으로써 道心을 닦아 사욕(人心)으로 교란되지 않는 공변된 지혜를 얻고 그로써 政事를 결단하여 濟世하고자 함이 성리학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래서 율곡은 무엇보다도 왕 자신의 도덕적 자기성찰을 간청하였고 왕의 도덕적 실현은 곧 政事에서 실현되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성리학이 실현될 수 없는 모순된 이상을 내걸고 중세봉건주의의 비인간적 정치권력과 사회구조를 공고히 했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율곡을 통하여 필자는 성리학적 자기성찰과 그 실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율곡의 年譜와 行狀과 啓와 疏를 보면서 '禮·義·廉·恥'의 四維를 인간 사회의 화해적 질서를 유지하는 이상적 행동양상으로 인식하고 필생을 安分·自處하려 노력했던 율곡의 고심어린 실천적 노력을 지나쳐 볼 수가 없었다.

율곡 당시 정치적 상황은 오늘날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율곡은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 벼슬을 받았고, 준엄하게 직언하였다. 거취에 있어 선비의 지절을 잃지 않으려고 고심하였다. 이러한 율곡의 自守의 모습은 누구나 알고 있는 유교의 덕목이지만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은 그리 흔한 것 같지 않다.

본고는 율곡의 <年譜>, <行狀>, <啓>, <疏> 등을 통하여 율곡의 거취와 거취에 있어서 그가 지키고자 했던 士의 志節을 규찰으로써 조선성리학의 자성과 실천이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실효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오늘날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公職의 의미와 處身의 도리를 되비쳐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1. 祿仕의 分守.

울곡은 13세에 진사 초시, 21세에 한성시, 23세 겨울에 별시에 합격하고, 29세 7월에 생원시 및 진사시 8월에 명경과에 급제하여 호조좌랑으로 관직에 나아가기 시작했다. 監試兩場과 文科發解, 生員 및 文科, 覆試, 殿試에 모두 壯元으로 뽑혔는데 장원을 차지한 것이 모두 아홉 번이어서 九度壯元이라 불리웠다.

출사한 이듬해 봄 예조좌랑에 제수 되었고 11월 司諫院 正言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울곡은 사직소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자신이 출사한 것은 집안이 가난하여 녹을 얻고자 함이었는데 정언의 직이 신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중직이니 여러 가지 잡일이나 보는 임무를 맡도록 하여 분수에 편안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⁴⁾

울곡이 녹을 얻고자 출사하였음은 그의 다른 사직서의 문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예로써 33세(무진 1568)에 올린 <辭副校理疏>를 들 수 있다. 해당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본시 한양의 한 포의입니다. 어린 나이에 道를 구하였으나 배움에 방법을 알지 못하여 諸家에 범람했는데 底定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운수가 불길하여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함부로 슬픔을 막으려다 드디어 釋教에 빠져서 기름이 스미고 물이 배듯 거둬 빠져들어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심이 어두어져 깊은 산으로 들어가 선문에 종사한 것이 거의 일년이었습니다. 天靈에 힘입어 하루 아침에 속임수요 거짓말임을 깨달으니 결함이 밝게 드러났습니다. 腸腑를 뽑아내도 더러움을 씻을 수 없어 죄에 묶인듯 죽고 싶도록 부끄럽고 분했습니다. 자고로 석씨의 독에 걸린 것이 신처럼 특히 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스스로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라 변변하여 문득 世務를 사절하고 적막한 물가에 잠기어 몸소 발갈고 독서하며 일생을 보내려 하였는데 신의 아버가 신이 글을 아로새기는 末端의 재주가 좀 있음을 아까워하여 억지로 이름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아버가 있음에 그 뜻을 보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신도 생각해보니 집안은 어렵고 아버이는 늙으셨

4) <辭正言疏>『전서』권3.장8-장9.

는데 봉양할 방도가 없어 부끄러움을 안고 허물을 가린 채 과거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성취하기도 전에 제 아버가 세상을 버리니 이름을 얻고 벼슬하려던 생각이 마음에서 싹 끊어졌으나 그래도 집이 누추한데 기댈 데 없음을 생각하고 삶을 꾸리고자 과거에 응시하기를 그만두지 않았으니 구구한 뜻은 뒷말의 녹이나 구하여 기한이나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좋은 벼슬이 갑자기 와서 은총을 입기를 기대하였겠습니까? 郎署의 직책을 역임하고 華省을 출입하고 육되게도 言官이 되어 대열을 따라 수행하고 吏曹에서 執筆하나 까마득히 識鑑이 없어 용렬하고 무능하게 太倉의 곡식만 훔쳐 먹었습니다. 스스로 처음 먹었던 마음을 돌아보면 오싹하지 않으면 두려워 떨니다. 언제나 아슬아슬하고 두려운 마음을 토로하여 간곡히 많은 要職을 사양하려 하였으나 우물쭈물하다가 오늘에 이르니 계급은 점점 높아지고 名位는 점점 드러나고 職事는 점점 무거워져 신이 머리를 버려도 聖上께 보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이 또 무슨 낮으로 편안히 玉堂이라는 가까이 모시는 자리에 처하여 論思의 소임을 맡겠습니까?)

이 소에서 우리는 율곡이 宦路에 들어서게 된 경위를 잘 알 수가 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한때 불교에 깊이 빠졌던 율곡은 그 부끄러움으로 스스로 분수를 헤아려 벼슬에 전혀 뜻을 두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집안의 형편을 감안하여 부득이 祿仕나 하려고 작정하고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녹사의 자리로는 분수에 넘치는 重職이 주어지자 율곡은 또 다시 辭職을 결단한 것이다. 30세에 제수 받은 사간원 정언의 사직소를 올

5) 臣本漢陽一布衣也 髫年求道 學未知方 泛濫諸家 罔有底定 生丁不辰 早喪慈母 以妄塞悲 遂耽釋教 膏浸水潤 反覆沈迷 因昧本心 走入深山 從事禪門 迨周一年 賴天之靈 一朝覺悟 誣辭偽說 破綻昭著 抽臏擢腕 未足洗汚 曩然歸家 慙憤求死 自古中釋氏之毒 未有如臣之特深者也 當是時也 自分爲世所棄 便欲謝絕世務 潛翳寂寞之濱 躬耕讀書 以送天年 臣父惜臣稍有雕蟲末技 強令求名 父在觀志 不得自由 臣亦自念家貧親老 無以爲養 卽羞掩垢 遂作舉人 科業未就 臣父棄世 名宦之念 頓絕於心 尙慮家累無依 欲遂其生 應舉不輟 區區之意 只求升斗之祿 以救飢寒耳 豈期好官儻來 謬恩橫被 歷職郎署 出入華省 忝爲言官 遂隊隨行 執筆銓曹 茫無識鑒 庸庸碌碌 雀鼠太倉 自顧初心 不寒亦慄 每欲一吐危棕 懇辭清要 越趨囁嚅 迄于今日 階級漸高 名位漸顯 職事漸重 非臣隕首所可上報 臣復何顏 偃然處玉堂近密之地 以當論思之任乎 <辭副校理疏> 『전서』 권3 장21 전면3행-후면8행.

릴 때만하여도 울곡은 녹사에 적합한 낮은 직책을 제수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 간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33세에는 司憲府 持平, 成均館 直講이 되었고 千秋使 書狀官으로 입연하였다가 거울에 귀국한 후 弘文館 副敎理, 知製敎 兼 經筵 侍讀官 春秋館 記注官을 제수 받게 되었다. 울곡은 이제 더 이상 관직에 있다가는 녹사나 하려던 소지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교리를 사직하는 이 소에서는 녹사에 적당한 직임을 간청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해직하여 농촌으로 물러나 분수에 따라 스스로를 지키며 힘써 학문을 닦음으로써 옛 단점을 바로 잡게 해주십사'고 간청하고 있다. 녹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처지이지만 그에 합당한 말직이 주어지지 않고 직위가 점점 높아지므로 더 이상 素志를 어기고 祿仕에 過分한 직책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생계를 이어야하는 절박함보다는 스스로 선비의 節義를 지키려는 自守의 결의가 더 강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울곡은 35세(경오년, 1570)에 퇴계에게 서신을 올려 이 고민을 다음과 같이 상의하였다.

강릉에 있을 때 인편에 올린 제 편지는 받아 보셨는지요

앞서 '돌아갈 만한 舊業이 없으면 차라리 물러갈 계획을 하지 말라'는 하교를 받자옵고 저는 삼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헛된 이름이 그르친 바 되어 名宦의 길에 잘못 들어서 제수받은 바가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전례를 따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러러 보아도 부끄럽고 굽어 보아도 부끄러워서 지난날 제 본뜻(素志)과 배치됩니다. 그래서 관직이 제수되면 문득 사양함을 면하지 못하면서도 녹사는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번거롭게 사양하고 받고하여 언제나 안정하지를 못하니 못입이 떠들어 비방이 제게 모였습니다. 세간의 毀譽는 껌념치 않으나 自處의 道에 미진한 바가 있음이 두렵습니다. 언제나 그옥한 바위와 긴 내를 생각하며 때로는 벗어나 달려가고픈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나아가자니 배 풀만한 배움이 없고 물러나자니 돌아갈 땅이 없고 녹사나 하고 싶은데 얽어잡고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옛분도 또한 이런 일을 만나서 잘 처신한 분이 계신지요? 가르침을 내려주실 것을 복결하오니 길 헤맬의 指南이 되어주시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⁶⁾

舊業이 없어 살아갈 길이 막연하니 녹사는 해야겠는데 점점 증직을 제수하니 분수에 넘친다 여겨 사직을 했다가는 생계 때문에 다시 직에 나아가곤 하여 이미 못 입이 떠들어 비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율곡이 두려워하는 것은 毀譽가 아니라 自處의 도에 미진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바는 ‘만약 전례를 따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러러보아도 부끄럽고 굽어 보아도 부끄러워서 지난날 제 본뜻(素志)과 배치됩니다.’라는 언급이다. 이미 時俗은 職이 제수되면 그냥 받는 것으로 굳어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율곡은 時俗에 따라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대로 직을 받으려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신하의 義理에 입각하여 직위를 받고 그에 따라 去就를 결정함으로써 士의 志節을 지키고 自處도에 어긋나지 않고자 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퇴계도 율곡에게 ‘때에 따라 義에 처하여 배운 것을 저버리지 말라’고 조언하였다.

그 근심을 꼭 잡고서 때에 따라 義에 처하여 배운 것을 저버리지 않을 뿐만한 것이 없소.이 저버리지 않는다는 두 자는 참으로 처하기가 실로 쉽지 않소. 참으로 來書에 이른 바 세 가지 경우 가운데(三則之間) 엮어 잡고 허락하지 않는다(拘執不許)는 것과 같은 경우가 더욱 처하기 어려운 바이요 옛날에 이 경우를 만나 잘 처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경우를 만나 잘 처하지 못했던 사람은 황이 바로 그요. 지금 머리가 허애 棺에 들어 갈 텐데, 물러나 쉬기를 청하고서 오히려 거두어 부르는 단서를 야기하여 薨에 산갈이나 둘 다 놀라 조처할 바가 없으니 어찌리요 어찌리요, 바야흐로 迷途에 있는데 지남을 구하길 바라니 웃을 밖어요.⁷⁾

-
- 6) 在江陵時 因便達鄙狀 未審下鑿否 前承下教云 旣無舊業可歸 則寧勿爲退計 珥謹聞命矣 但珥爲虛名所誤 謬入名宦之途 所除皆非可堪之職 若循例旅進 則仰愧俯作 與平昔素志背馳 故未免拜官 輒辭以爲祿仕之計 紛紜辭受 無時可定 衆口嗷嗷 謗集于身 世閒毀譽 雖不掛念 而抑恐自處之道 有所未盡 每想幽巖長川 有時欲脫走而未能爾 進則無學可施 退則無地可歸 欲爲祿仕 則拘執不許 未知古人亦有遇此事而能善處者乎 伏乞下示 以爲迷途之指南 千萬幸甚 <上退溪先生庚午>『전서』권9.장9 후면4행-장10 전면4행.
- 7) 不如職思其憂 隨時處義 思無負於所學而已 惟此無負二字 處實不易 正如來書所云三則

이상에서 우리는 祿仕의 분수를 지키려는 율곡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

祿仕로서 가족부양의 책임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혈연의 義理와 신하로서 자신에게 합당한 자리가 아니면 받아서는 안된다는 선비로서의 自守의 義理 사이에서 갈등하던 율곡에게 自守의 道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강릉 외조모의 병환이었다.

율곡은 33세(무진, 1568)되던 해 겨울(연보에는 11월이라 하였음) 다시 이조좌랑을 제수받았는데 강릉 외조모의 병이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기화로 다시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올린 <辭校理仍陳情疏>에서 율곡은 사직의 이유를 자신의 능력 부족과 분수를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조모가 봉양할 자식이 없기 때문이라고⁸⁾ 했다. 율곡이 피력하고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만약 소신이 배움은 쓰기에 족하고 재주는 經世에 족하여 있고 없는 것이 治亂에 관계되고 進退가 盛衰에 관계된다면 公義는 무겁고 私情은 가벼우니 구구한 까마귀의 私情은 이루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이 녹녹하여 취할 것 없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신이 국가에 있어서는 아홉 마리 소에서 터럭 하나이나 조모에게 있어서는千金 한 바가지입니다. 조정에 있어서는 맑고 밝은 다스림에 보탬이 없지만 시골에 있어서는 효도의 의리를 教化함에 때움이 있으니 그 득실은 가릴 것도 없이 자명합니다. 가사 국가가 재물을 모으고 장이를 모음에 큰 것 작은 것을 버리지 않아서 신과 같은 가시나무도 場師에게 버림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 그 성장을 천천히 기다려야 할 것이니 거두어 쓰는데 급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모의 나이는 올해 구십이 찼으니 비록 병통이 없다 하여도 세상에 얼마 있지를 못할 텐데 하물며 숙질을 만나 床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신의 나이는 34입니다. 古人の '강건하여 벼슬할 때'와는 거리가 아직 여섯 살이나 됩니다. 조모가 돌아가는 것을 기다려 몸에 가까이 하고 棺에 가까이 하는 것을

之間 而其拘執不許 益所難處 古之遇此善處者 未知何人 今之遇此不能善處者 則滯是也 至今白首將就木 既退而請休 反惹起收召之端 雙髻如山 兩皆驚愕 罔攸措地 奈何奈何 方在迷塗 欲求指南 爲可笑耳 <答李叔獻庚午>. 퇴계집 권14 장25-26.

8) 臣之辭職 固是量能度分 而亦爲祖母之無養也 『전서』권3 장24 후면 5행.

반드시 정성스럽게 하고 반드시 미덥게 한 다음에 조정에 돌아가 몸바쳐 모든 관리들의 열에 걸끼어도 늦지 않습니다.

신은 본디 대대로 국록을 받은 가문의 신하이니 어찌 산림의 선비가 몸을 깨끗이 하여 아주 가버리는 것과 같겠습니까? 또 신은 대대로 한성에 살아 시골에는 하던 일이 없습니다. 관직 하나 외에는 돌아갈 바가 없습니다. 신이 비록 강릉으로 돌아가지만 집안 수십 식구가 한성에 있어 입에 풀칠할 바탕이 없는데 신이 어떻게 즐겨 矯激을 하여 스스로 춥고 배고픈 고통을 취하겠습니까? 참으로 분수 아닌 직을 함부로 더럽혀서도 안되겠고 죽음이 드리운 육친을 차마 끝내 이별할 수가 없어서 집안의 궁색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⁹⁾

世家の 신하이신 자신의 처지로 보면 마땅히 국가에 봉직해야 하는 것이 군신의 의리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직위가 아직은 효의 의리를 저버려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호구지책이 없어 녹사를 그만둘 형편도 아니지만 죽음을 앞둔 외조모의 병을 구완해야하는 효의 의리가 집안의 호구지책을 해결해야하는 가장으로서의 녹사의 의리보다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울곡이 사직소를 올려 吏曹佐郎을 사직하고 귀성하자 諫院에서는 ‘外祖에 歸覲하는 것은 법전에 없다’고 탄핵하여 파직을 요구하였는데 선조는 그 효를 아름답게 여겨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¹⁰⁾ 오히려 이듬해인 기사년(1569) 弘文館 校理를 제수하여 驛馬를 타고 入京하라고 명하

9) 若使小臣學足以致用 才足以經世 有無係治亂 進退關盛衰 則公義爲重 私情是輕 區區鳥鳥之私 有所不遂也 今臣之碌碌無取 如前所陳 臣於國家 則若九牛一毛 於祖母 則若千金一瓠 在朝無益清明之治 在鄉足補孝理之化 其得失 不待辨而自明矣 假使國家鳩材聚工 細大不捐 如臣槁棘之流 或不見棄於場師 亦當徐俟其成長 不必汲汲於收用也 祖母之年 今滿九十 雖無病痛 在世無幾 況遭宿疾 不離牀席者耶 臣年三十有四 距古人強仕之時 尙隔六歲 待祖母之歸盡 使附於身 附於棺者 必誠必信 然後還朝 獻身廁乎百執事之列 亦未晚也 臣本世家之臣也 豈同山林之士 潔身長往者哉 且臣世居漢城 鄉無舊業 一官之外 無所於歸 臣身雖往江陵 而家累數十口 尙在都下 糊口無資 臣豈樂爲矯激之舉 自取飢寒之若哉 誠以非分之職 不可妄忝 垂死之親 不忍終訣 故一家之窮厄 不遑顧念也 <辭校理仍陳情疏> 『전서』권3 장25 전면2행-후면 6행.

10) <연보>, 『전서』권33, 장25 후면.

였으나 울곡은 <辭校理疏>를 올려(6월) 사죄하면서 외조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직하고 歸省할 수밖에 없었던 인륜적 의리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소신은 강보에 쌓여있을 때 강릉 외가에서 자라 외조모 이씨가 어루만지고 안아 주며 보살펴 주었으니 은혜가 갖추어지고 또 지극하였습니다. 신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어 외조모를 어머니로 받들었고 외조모도 아들이 없어 아들로 의지하고 죽은 뒤의 일을 모두 신에게 의탁하였습니다. 이름은 비록 할머니와 손자이나 情은 실은 모자입니다. 조모는 금년에 나이가 90이니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데다 병이 떠나지를 않아 오랫동안 병석에 계십니다. 신이 벼슬에 매여 있어 覲省할 길이 없으니 하루 아침에 갑자기 영 돌아가시게 될까봐 너무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병을 핑계로 일을 그만두고 허둥지둥 강릉으로 돌아와 거의 약구완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조모가 動止에 사람을 필요로 하고 氣息이 생기가 없어 마침내 소진하여 生意가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차마 곁을 떠날 수가 없어 還京하지 못하였습니다.¹¹⁾

사직을 하면서까지 외조모의 병을 구원한다는 것은 법전적 규범에는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울곡은 의리를 실천함에 있어서 법전적 규범에 실천의 기준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實際의 情況에 입각하여 의리를 실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후의 사직소와 퇴계에게 올린 서신 등을 감안해 보면 외조모의 병구완을 기회로 효의 의리를 실천하는 동시에 自守의 도를 실천하여 자신의 素志를 지킴으로써 신하의 義理와 선비의 지절을 실행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1) 伏以小臣襁褓之時 鞠于江陵外家 外祖母李 撫抱顧復 恩愛備至 臣早失恃 奉之爲母 祖母無男 倚之爲子 身後之事 悉託於臣 名雖祖孫 情實母子 祖母今年九十 日迫桑榆 病不離身 沈痾牀席 臣糜王爵 覲省無路 深恐一朝奄忽 求爲終天之痛 茲用移疾謝事 狼狽東歸 庶及救藥 而祖母動止須人 氣息奄奄 恐遂漸盡 生意不回 不忍離側 尙未還京 <辭校理疏> 『전서』권3 장22 전면11행-후면6행.

2. 重任의 去就와 志節.

(1) 重任의 義理

울곡은 형편으로는 녹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녹을 얻기 위하여 녹사의 직으로는 분수에 넘치는 중직을 받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志操로 누차 사직소를 올려 말직으로 옮겨달라, 전원으로 돌아가 역량을 더 닦은 후에 다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직을 물러나려 했다. 家長은 舊業이 없다면 가족의 호구를 위하여 마땅히 출사해야 한다. 그러나 糊口를 위한 출사라면 그 자리는 국정에 별 영향이 없는 직이어야 한다. 직위가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높아지면 선비는 마땅히 그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일을 감당하던가 그럴 수 없는 형편이면 과감히 물러나던가. 이것이 士의 志節이며 신하의 의리이다.

우리는 울곡의 여러 사직소에서 직을 수수하는 군신의 의리에 대한 그의 소신을 접하게 된다. 그 한 예를 보자.

생각하옵건대, 人君이 신하를 씬에는 반드시 널리 묻고 의논하고, 반드시 정하게 보고 살펴야 하며, 人臣이 임금의 섬김에는 반드시 상세히 때를 생각하고 반드시 살펴서 자신을 해야려야 합니다. 널리 묻는 고로 近習에 가리지 않게 되고 정하게 살피는 고로 중론에 현혹되지 않으며, 상세히 생각하는 고로 기미에 어두운 실수가 없고 살펴 헤아리는 고로 함부로 덮어쓰는 근심이 없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 하여도 반드시 기다려서 어짐을 본 연후에 쓰셔야 합니다. 널리 묻고 정하게 살피는 이래야 합니다. 우리 임금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허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직은 물러나서 스스로를 닦아야 합니다. 상세히 생각하고 살펴 헤아림도 또한 이래야 합니다.

대저 이러한 고로, 임금은 현신을 얻는 것으로써 일을 삼는 것이니 그 작록을 받을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가벼이 주는 것이 아니요, 신하는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써 뜻을 삼는 것이니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분수 아닌 직책을 가벼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옛날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했던' 까닭이니 위에서는 잘못 등용함이 없고 아래서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 없이 먹는 자가 없었습니다.¹²⁾

요컨대 그 직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하는 것이 임금의 도리요,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 능력에 넘치는 분수 아닌 직책을 받지 않아 스스로 처신의 도를 지키는 것이 신하의 절의라는 것이다.

신은 듣자옴건대 임금은 禮로써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忠으로써 임금을 섬긴다고 합니다. 禮는 節文이 있으니 반드시 그 신하의 才力을 헤아려 그 직을 주고 그 이름을 책임지우며, 忠은 당연히 목숨을 다 해야 하니 반드시 스스로 그 才力을 헤아려 그 직임을 받아 몸을 바칩니다. 임금이 신하의 재주를 헤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요 신하가 그 재주를 헤아리지 않으면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¹³⁾

재력에 맞추어 직임을 주는 것이 임금이 신하를 대하는 禮라고 하였다. 자기 재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임을 받아 목숨을 바치는 것이 신하가 임금에게 바치는 忠이라 하였다. 이것이 곧 울곡이 생각하는 군신의 의리이다.

울곡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임금의 의리요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여 일을 받고 받으면 힘을

12) 伏以人君之用臣 咨詢必博 鑒察必精 人臣之事君 慮時必詳 量己必審 咨之博 故不蔽于近習 察之精 故不眩於衆論 慮之詳 故無昧幾之失 量之審 故無冒進之患 國人皆曰賢矣 而必待見賢然後用之 咨之博而察之精也如此 吾君可與有爲 而吾非可爲之人 則姑退而自修 慮之詳而量之審也亦如此 夫如是 故君以得賢爲務 不以爵祿輕與非人 臣以自守爲志 不爲利名輕受非分 此古之所以君君臣臣 上無謬舉 下無尸素者也 『전집』 권3. 장20. 전면11행-후면8행.

13) 竊聞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禮有節文 必度其臣之才力 而授之職以責其成 忠當盡命 必自度其才力 而受其任以致其身 君不度臣之才 則爲任其人 臣不自度其才 則爲賊其身 <辭大提學三啓> 『전서』 권8 장11 전면4행-8행.

다해 업적을 이루는 것이 신하의 의리임을 강조하였고 이를 스스로 실천하고자 했다.

울곡의 사직서는 모두 이러한 官職授受의 義理에 입각하여 올려진 것이었다. 울곡은 尸素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울곡은 자신의 경륜이나 능력이 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는 서슴없이 사직을 간청하였다.

戶曹佐郎으로 출사하기 시작한 울곡이 출사한 지 1년 3개월 만에 司諫院 正言을 제수받게 되자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백성의 뜻을 전달하여 그릇된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하는 諫官의 책임은 마땅히 忠直하고 사리에 밝은 人士를 가려 맡겨야 하므로 아직 時務에 통달하지 못한 新進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직책이라 하여 사직서를 올렸다.

46세 되던 해 10월 자헌대부 호조판서로 승진 제수되고 11월 겸직으로 弘文館 大提學 藝文館 大提學 知經筵春秋館 成均館事에 제수되었는데 이때 네 번이나 거듭 사직을 청하였다.¹⁴⁾ 이때 사직의 이유는 대강 아래와 같았다.

<辭藝文提學啓> : 詞章에 원래 소질이 없는 데다 공부도 하지 않았고 근년 이래로 병으로 기력이 쇠하고 정신이 흐려 文筆을 전폐하였으니 翰墨으로 직업을 삼을 수 없다. 藝文館은 詞翰의 일을 전담하는 곳이니 문장을 자부하는 자가 아니면 감히 이 선임을 함부로 받을 수가 없다.

<辭大提學啓> : 지금 文風은 滅裂하고 師道는 황폐하며 세속은 詭詐를 숭상하고 선비는 실행을 소홀히 하는 등 狂流가 사방에 넘치므로 學行이 스승이 될만하고 문필이 衰世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얻는다 하더라도 大提學의 직임을 주어 잘못을 바로잡아 구하지 못할까 걱정인데 자신은 소시부터 經書만을 읽고 詞章을 익히지 않은데다 이제까지 衰病이 심해 文筆을 全廢하였고 詩學은 이미 스스로 힘쓰지 못했을 뿐더러 남의 優劣을 가릴 능력이 없으니 大提學의 일은 감당할 수 없다.

<再啓> : 錢穀에 관한 일과 文翰에 관한 일은 서로 배치되는 일이어서 높은 재주를 지닌 사람도 兼職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事

14) 『전서』권8 <辭藝文提學啓辛巳> 장8 후면10행-장9 전면 10행, <辭大提學啓>, <再啓>, <三啓> 장9 전면11행-장11 후면 7행 등.

大交隣의 문서를 감당할 능력도 저작의 우열을 가릴 능력도 儒習의 그릇됨과 文風의 무너짐을 구제할 능력도 없어 걱정이 되어 心病이 생길 지경이니 억지로 행할 수가 없다.

<三啓> : 임금은 禮로써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忠으로써 임금을 섬기는 것이니 예는 신하의 재력을 헤아려 관직을 주고 그 성과를 책임지우는 것이요 충은 자신의 才力을 스스로 헤아려 그 직임을 받아 몸을 바치는 것이다. 자신은 몸이 병들고 詩學에 종사하지 않아 文衡과 使臣接待의 책임을 맡을 수가 없다.

평소 주력하지 않았던 사장의 일을 맡긴 데다가, 서로 겹하여 직임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戶曹의 長과 藝文館 弘文館의 長을 동시에 맡겼으므로 尸素를 용납할 수 없었던 울곡으로서는 당연히 사직을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7세 10월에 원접사의 명을 받았을 때도 데 詩學이 所長이 아니니 국가에 수치를 끼칠 수 없다고 大提學과 아울러 사직을 청하였다.¹⁵⁾

또 12월에 兵曹判書를 제수받자 ‘군정이 닳이지 않고 武備가 허술하고 국중과 변방이 공허하고 군사를 충족하는 대책이 없는 현실정에서 백면 서생이 병든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소임이 아님’을 하소하여 사직을 청하였다.¹⁶⁾

48세(계미, 1583) 정월에는 <呈病出仕後復辭兵曹判書啓>¹⁷⁾를 올려 병이 심해졌음과 文衡을 잡고 또 兵曹를 맡는 文武 重任이 한 사람이 겸하여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님을 하소하여 다시 사직을 청하였다.

兵判에 다시 司僕侍 提調가 제수되자 울곡은 ‘변경이 안정되지 못하여 의리상 兵判을 사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閑漫한 직책이 아닌 文衡과 校書館 提調를 겸하게 하고 다시 司僕侍 提調를 제수하여 감당하지 못할 일을 억지로 맡기는 것은 聖主가 사람을 쓰는 도리가 아니니 悶迫

15) <辭大提學及遠接使啓> 『전서』 권8.

16) <辭兵曹判書啓> 『전서』 권8, <呈病出仕後復辭兵曹判書啓>, <復辭兵曹判書備邊司有司堂上啓> 『전서』 습유 권2.

17) 『전서』 「습유」 장22 후면 8행-장23 전면 8행.

한 정황을 살펴 면직해 달라'고 청하였다.¹⁸⁾

율곡은 타고난 弱質에다 젊어서부터 위병과 설사증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며 40대 후반에는 眩暈症이 아주 심했던 것 같다. 율곡은 거의 모든 사직서에서 자신의 무능과 신병을 사직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특히 직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병세가 악화되면 언제나 물러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다. 율곡은 국가의 중직은 한가하게 앉아서 병을 조리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신병이 중하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외직이므로 율곡이 사양하지 않고 받았던 청주목사와 해주목사도 결국은 병으로 사직하였다.

47세 정월에는 戶曹를 받은 지 불과 석달 만에 吏曹를 제수하고 다시 8월에 刑曹로 바꾸어 제수하고 거기다가 다시 議政府 右參贊을 제수하자 '右參贊은 고된 직무가 아니니 오히려 尸位를 할 수 있지만 兼帶한 대제학은 事大交隣의 辭命이 집중되는 바이며 인재를 작성하는 것이 오로지 그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 오랜 신병 끝에 眩暈症이 심하여 기억력이 희미해진 상태로는 문형의 자리를 슬그머니 취할 수 없으니 애절한 마음을 살펴 직을 갈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애걸하면서 결코 병을 핑계하여 일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소하였다.¹⁹⁾ 선조는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더러 도리어 崇政大夫로 특진하고 議政府 右贊成을 제수하였다.

10월에 遠接使의 명을 받고도 詩學의 졸함과 아울러 현훈증으로 혹여 실수하여 국가에 수치를 끼치게 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사양하였으나 이 또한 운허받지 못하여 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12월에 復命하여 兵曹判書를 제수받았는데 大司諫과 兵判을 아울러 사양하였다. 文武의 重任을 결코 한 사람이 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병이 다시 일어나 도저히 병판의 증임을 수행할 수가 없

18) <辭免司僕侍提調啓> 『전서』 「습유」 권2. 장23 전면 9행- 장24 전면 3행.

19) <辭大提學啓> 『전서』 권8 장14 후면 7행-장15 전면 8행.

다는 것이었다. 병을 핑계하여 일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병조의 장관은 병을 조리할 수 있는 한가한 벼슬자리가 아니니 비록 잠시 출사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일을 볼 수는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율곡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다시 司僕侍提調를 부가하였다.

이러한 전후의 사정을 살펴보면 율곡은 직위를 받으면 충실히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 생각했으므로 계수되는 직책이 능력에 과중하거나 혹은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혹은 자신의 건강이 직을 충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때마다 자신의 역할을 헤아려 사직서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율곡은 직을 받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자신의 능력을 商量했지만 경륜 또한 중요시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 못지 않게 조정 중신의 신임 또한 큰 비중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율곡의 여러 소에서 확인되는 바 율곡은 경륜을 무시한 급진적 발탁은 조정의 기강을 세우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朝廷 중신들의 신임을 얻을 수도 없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지금 신은 한낱 철부지로서 시무에 통하지 못한 데다가 뜻이 약하고 재주도 시원찮고 학문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집이 어려워 녹을 구하느라 구차히 과거에 응했는데 외람되게 天恩을 입어 장원한 뽕허니 郎署의 직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향차 언책의 중한 자리를 더럽히겠습니까? 신이 본적을 계수 받은 이래로 잠을 자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으며 몸을 어루만지며 걱정할 것을 생각하면 숨지도 않은데 떨립니다. 하물며 지금 나라일은 비유하자면 큰 병을 앓은 끝에 원기가 회복되지 않아 마디마다 쑤셔서 한 번 조섭과 보살핌을 놓치면 문득 위급에 이르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뜻을 진달하여 구멍나고 헐어진 것을 메우고 때우자면 그 책임은 언관에게 있으니 마땅히 충직하고 이치에 통달한 사람을 택하여 그 직책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찌 신진의 하열한 무리로 하여금 중임을 덮쓰고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가자니 믿지 못하는 혐의가 있을 것이고 물러나자니 소인이 군자의 것을 차지했다는 나무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와 허물 면하기를 바라느라 겨를이 없는데 허물며 나아가 충언을 다하여 임금의 직무를 보좌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이 쓰지 못할 재목임을 살피시고 신이 스스로를 아는 밝음을 어여삐 여기사 신의 직을 바꾸시어 여러 가지 잡일이나 하는 직을 주시어 분에 편안하게 하여주시면 조정은 거의 잘못 임용한 실수가 없을 것이고 소신은 함부로 나아갔다는 욕을 면할 것입니다.²⁰⁾

인용한 글은 <辭正言疏>의 일부이다.

겸양으로 내세운 사직의 이유는 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만 결국 '나아가자니 믿지 못하는 혐의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新進이 과분한 重職을 받으면 결국 衆臣의 신임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業務遂行에 장애가 됨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6세(신사, 1581) 되던 해 10월 자헌대부 호조판서로 승진되었을 때 올린 사직소에서도 늘 거론하는 자신의 능력 부족과 질병 말고도 자신의 관직 경력과 재출사 기간에 비해 官爵이 너무 과하다는 것을 사직의 이유로 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은 항상 전리에 엎여 있어 입조한 날이 적는데 宰臣의 반열에 특별히 승진 시키시고 겨우 몇 달이 지나 또 正卿에 올려 주시니 관작이 너무 과람하여 名器가 너무 가벼워 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의 나무람이 있을 것입니다. 복이 과하면 재앙이 생기는 것은 이치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비록 지극히 미련하지만 자신을 아낄 줄 아는데 어찌 무릅쓰고 어둡게 받아 나아가서 조정의 수치를 끼치고 스스로도 피하기 어려운 재앙을 만들겠습니까?²¹⁾

20) 今臣本一豎 而不通時務 加之以志輒才下 學無所成 家貧干祿 苟應科舉 濫蒙天恩 擢置上第 郎署之職 尚恐不堪 況忝言責重地乎 自臣除授本職以來 寢不安席 食不甘味 撫躬思憂 不寒亦慄 況今國事譬如大病之餘 元氣未復 百節疼痛 一失調護 便至危急 於此之時 上格宸衷 下達輿情 釐補穿弊 責在諫官 當擇忠直達理之士 俾盡其職 豈可使新進下劣之流 冒居重任 進有未信之嫌 退思負乘之誚 冀免罪咎之不暇 況望進盡忠言 以補衰職乎 伏望殿下察臣非可用之材 憐臣有自知之明 命遞臣職 授以百執事之任 俾安其分 則庶朝廷無謬舉之失 小臣免冒進之譏矣 <辭正言疏> 『전서』 권3 장8 후면9 행-장9 전면 9행.

47세에 右贊成을 사직한 이유도 경륜으로 보아 지나친 고위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상략- 하물며 사람을 쓰는 법은 賢才가 남보다 뛰어난 자가 아니면 반드시 경력을 헤아려서 신관이 갑자기 구관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신은 배움을 벗은 지 20년이 안되며 항상 병으로 시골에 있었으므로 조정에 들어와 실지로 근무한 것은 날짜가 매우 적습니다. 무슨 才德과 功勞가 있다고 하루 아침에 치올림을 이렇게까지 극도로 하옵니까? 分義로 헤아림에 매우 이치에 어긋나며 利害로 살피도 또한 아름다운 복이 아닙니다. 聖慈께서는 어리석은 誠心을 불쌍히 살피시어 微物을 꼭진히 보호하시어 속히 명을 改正하시어 名器를 중하게 하시옵소서!²¹⁾

자신은 특별한 인재가 아닌데 경력을 무시하고 과분하게 특진시키는 것은 사람을 쓰는 의리에 벗어나는 것이니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울곡은 經歷을 勘案하여 공정하게 직이 수수될 때 朝廷의 紀綱이 선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朝廷에 紀綱이 서야 직을 받은 신하가 충직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그것을 실천하고자 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자신의 경력과 出仕의 實情을 고하여 지나친 승진을 피하고자 했다.

울곡은 去就뿐 아니라 行藏에도 의리가 있고 경륜에 따라 행장의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퇴계의 물러남을 두고 울곡이 피력한 다음과 같은 견해는 이를 잘 보여준다.

21) 且臣恒伏田里 立朝日淺 而特陞宰班 纔經數月 又躋正卿 官爵太濫 名器太輕 不有人非 必有鬼責 福過災生 理所必至 臣雖至愚 亦知自愛 安敢冒昧承當 以貽朝廷之羞 自作難遣之孽乎 <辭戶曹判書疏> 『전서』 권7 장26 후면8행-장27 전면 1행.
22) 況用人之規 非有賢才過人者 則必計賤歷 不可遽以新踰舊 今臣釋褐未滿二十年 恒疾在野 而立朝實仕 爲日甚淺 有何才德功勞 而一朝驟陞 至於此極乎 揆之分義 既甚乖理 揣以利害 亦非佳福 伏望聖慈 務察愚誠 曲全微物 亟命改正 以重名器 <辭右贊成啓>, 『전서』 권8.장 15 후면 4행-9행.

李滉으로 禮曹判書를 삼았다. 滉은 산림에서 도를 지켜 인망이 날로 무거워 明宗이 여러 번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말년에 滉을 불러 중국사신을 접대케 하니 滉이 올라 왔는데 제수하는 명을 받지 못한 채 명종이 승하하였다. 그래서 滉은 조정에 있으면서 명종의 행장을 지었는데 예조 판서를 제수하자 병으로 사직하였다. 上이 “卿의 賢德을 들은 지 오래 되었어 이렇게 새로 정치를 시작하는 때에 卿이 벼슬하지 않으면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오 사직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라고 하셨으나 滉은 끝내 관직에 이바지할 마음이 없었다. 李珣가 滉을 뵈고 “어린 임금이 처음 서고 時事가 어려움이 많으니 分義로 헤아려도 물러가서서는 안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滉은 “도리로는 물러나서는 안되지만 나 자신으로 보면 물러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병이 많고 재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때 成渾이 參奉에 제수되었는데 오지 않으니 座客이 “成渾은 어째서 오지 않는가?”고 묻기에 李珣가 “成渾은 병이 많아 벼슬을 하지 못하오, 만약 강제로 벼슬하게 하면 이는 그를 괴롭히는 것이요”하였더니 滉이 웃으며 “叔猷은 어째서 成渾은 후히 대접하고 내게는 박하게 대접하는가?”하였다. 李珣는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成渾의 벼슬이 선생과 같다면 일신의 私計를 봐 줄 것이 없습니다. 成渾이 낮은 벼슬에 분주하게 한대야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 만약 선생께서 經席계신다면 이익이 아주 큼니다. 벼슬이라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지 어찌 자신을 위한 것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滉은 “벼슬이란 확실히 남을 위한 것이기는 하다. 만약 硯가 남에게 미치지 못하고 硯계는 근심만 절실하게 된다면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하였다. 珣가 말하기를 “선생이 조정에 계시면 가사 計策하는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임금의 마음이 증하게 의지하고 사람들이 기쁘게 의지하니 이 또한 硯가 남에게 미치는 것입니다.”하였는데 滉은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

삼가 살피건대 大臣은 도로써 임금을 섬기다가 될 수 없으면 그만두는 것이다. 李滉은 先朝의 遺老로서 이미 다시 入朝 하였으니 새 임금을 輔佐하다가 그 되지 않을 것을 안 다음에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데 간곡히 사직하여 마지 않으니 易에 이른바 능력을 헤아리고 분수를 헤아려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음에 편안한 사람인가?23)

23) 以李滉爲禮曹判書 滉守道山樊 人望日重 明宗累召不至 末年 召滉使接待華使 滉乃至未及拜命 明宗昇遐 滉因在朝 撰明宗行狀 及拜宗伯 乃辭以疾 上曰 聞卿賢德久矣 如此新政之時 卿若不仕 豈安於心乎 宜勿辭 滉終無供職之意 李珣謁滉曰 幼主初立 時事多艱 撥之分義 先生不可退去 滉曰 道理雖不可退 以吾身觀之 不可不退 身既多病 才亦無能爲也 時成渾拜參奉而不來 座客有言成渾何以不來 珣曰 成渾多病 不堪從宦

遺逸로 천거되어 처음으로 參奉을 제수받으²⁴⁾ 成渾은 자신의 몸을 돌아보아 벼슬하지 않는 것이 이로우면 벼슬하지 않고 일신을 보존해도 되지만 李滉은 先朝의 遺老요 經綸도 높은데 아무리 그간에 은거했다 하더라도 이미 明宗의 부름을 받아 다시 조정에 나왔으니 일단 머물어 新王인 선조를 보필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다. 道로써 임금을 섬기다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물러가는 것이 大臣의 의리라는 것이다.

33세에 홍문관 부교리를 사직할 때부터 44세에 대사간을 사직할 때까지 율곡은 청주목사와 해주 목사를 제외하고는 제수되는 벼슬마다 사직하면서 시골로 물러나도록 허락해 달라거나 제발 부르지 말아 지절을 지키게 해달라고 사정하였다. 특히 43세 3월부터 44세 5월에 걸쳐 누차 제수된 대사간을 사직하는 어투는 아주 강경하였다. 율곡은 42세에 이미 은거의 결심을 확실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월 석담으로 돌아가 종족을 모으고 <同居戒辭>를 지었으며 43세에는 은병정사를 짓고 주자의 紗당을 옹립하였다. 그러나 45세 12월에 다시 대사간의 부름을 받게 되어서는 선조가 병중에 부르는 뜻이 懇惻하여 부득이 나아가 사은하고 入對하였다.²⁵⁾ 이 入對로써 율곡은 조정에 상당기간 직을 산 신하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의리에 합당한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은거의 결심이 이미 확고하지만, 병든 임금의 간절한 뜻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 또한 오래 직을 산 신하의 인정이다. 그러니 勤省하였던 것이다.²⁶⁾

若強之仕 則是苦之也 滉笑曰 叔獻(珥字)何其待成渾厚 而待我薄耶 珥曰 不然 成渾之仕 若如先生 則一身私計 不足恤也 使渾趨踏末官 何補於國 若先生在經席之上 則爲益甚大 仕者爲人 豈爲己乎 滉曰 仕者固是爲人 若利不及人 而患切於身 則不可爲也 珥曰 先生在朝 假使無所獻爲 而上心倚重 人情悅賴 此亦利及於人也 滉不肯

謹按 大臣以道事君 不可則止 李滉以先朝遺老 既復立朝 則當輔左新王 知其不可 然後乃退 而懇辭不已 其易所謂量能度分 安於不求知者歟 「經筵日記」 隆慶元年 七月 『전서』 권28 장13 후면 5행-장14 후면 2행.

24) 성혼이 34세(선조 1년, 1568년) 遺逸로 천거되어 典牲署參奉에 제수되었을 때의 일이다. 『우계집』 「연보」 권1. 장4 후면 細注 참조.

25) <연보> 『전서』 권34 장13, <辭大司諫疏> 『전서』 권7 장23 전면11행-27전면11행, <經筵日記> 萬曆8년 庚辰12월 초 『전서』 권30 등 참조.

26) 去冬被召 適值聖躬新經違豫 犬馬之情 急於觀省 不敢辭職 及瞻天光 感戀尤深 未遑

(2) 機微에 따른 去就의 節義

울곡은 여러 사직소에서 직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로 대개 자신의 성격적 결함, 능력 부족, 미흡한 경륜, 身病 등을 들고 있다.

신하가 직을 받을 때 스스로의 능력을 헤아려 業積을 이룰 수 없다면 그 직은 받지 않는 것이 직을 받는 신하의 기본적 義理라고 생각하는 것이 울곡이 관직을 받는 원칙임은 앞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울곡의 많은 辭職疏와 辭職啓에서 우리는 업적 달성의 여부를 헤아리는 기준을 자신의 능력에만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니 그가 말하는 능력이란 단선적인 자신의 의지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朝廷의 風潮, 임금의 의지, 衆臣의 姿勢 등 직을 수행하는데 작용하는 제반 여건 속에서의 자신의 직무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직무는 결국 혼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풍조, 중신들의 자세, 임금의 의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다만 울곡이 바꿀 수 없었던 신념은 시속이나 풍조 혹은 임금의 의지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尸位를 지키고 있는 것은 신하의 의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여건 속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직의 정정당당한 원래적 소명을 달성하는 능력을 울곡은 직무 수행의 능력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것이 그의 모든 辭職의 辯이 '신은 능력이 모자라서'가 되는 所以然이다.

울곡의 거의 모든 辭職疏·啓들은 病과 能力과 經綸을 사직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문맥을 잘 음미해 보면 실은 당시 임금의 뜻과 조정의 분위기로 보아 더 이상 직에 있다가는 군신의 의리를 지키기가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나아가 충성하지 못할 바에야 물러나 자기를 지키는 自守 길을 택하기로 작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3세에 <사정언소>를 올린 이후 울곡은 36세에 외직인 청주목사만을 기거이 받았었을 뿐 그 외의 모든 직은 身病과 無能을 이유로 사직하다가 38세(계유, 1573)되던 해 7월 弘文館 直提學을 제수받고 또 병으로 사

揆分 遂冒重任 <辭大司諫疏> 『전서』권7 장23 후면 4행-6행.

직하였는데 허락하지 않자 謝恩 후 다시 세 번이나 소를 올려²⁷⁾ 윤허를 얻고 8월 울곡으로 돌아갔다. 이때 올린 <三疏>의 문맥을 보면 울곡이 굳이 물러나고자 했던 것은 당시 조정의 風潮로 보아 도저히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임을 비교적 잘 알 수 있다.

가만히 보면, 오늘날, 정사는 낡은 법규를 따르고, 사람은 練熟한 이들만 취하고 묘당은 건의하여 아뢰는 논의가 없고 신하들은 일 좋아한다는 비방을 피하고 있어서, '正心誠意'는 이미 버려진 풀개허수아비가 되었고 '王道仁政'은 어리석은 유자의 빈말이 되었으며 임금께 상주하는 글은 해당관청의 낡은 종이 가 되었고 장부와 문서는 서리들의 세업이 되었습니다. 시종들은 아뢰지 않고 일을 버려두는 것을 高致로 삼고 士類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침묵하는 것으로 中을 얻었다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 관원은 자주 바뀌고 온갖 일이 거행되지 않으며 私를 일삼는 자가 지혜로운 게 되고 공을 일삼는 자는 어리석은 게 되며 俗을 따르면 賢이 되고 걸출하게 서면 못난 게 됩니다. 가사 호걸지사로 아름다운 자질을 속에 품고 기특한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도 조정의 반열에 끼게 되면 장차 반드시 서로 모순이 되어 장차 한가지 계책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신은 재주는 성기고 병은 고질이고 말은 험령하고 행동은 외톨입니다. 잔약한 몸에다 못비난과 못비웃음에 외롭고 외로와 罪와 허물을 면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물며 衰職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²⁸⁾

정사는 낡은 법규를 따르고, 練熟한 사람만을 등용하고, 건의하고 일하는 것이 비방의 대상이 되며, 시비를 가리지 않으며, 公義는 밀어 놓고 私利만 취하여 직을 옮겨다니기만 하는 것이 당시 조정의 풍조였다. 이러한 모든 것을 更張해야한다고 생각했던 울곡으로서의 결국 아무 일도 할

27) <辭直提學疏>, <再疏>, <三疏> 『전서』 권5.

28) 竊觀今日政遵舊規 人取練熟 廟堂無建白之議 臣鄰避喜事之謗 正心誠意 爲已陳之芻狗 王道仁政 爲堅儒之空言 章奏爲該司之故紙 簿牒爲胥吏之世業 侍從以休告廢事爲高致 士類以模稜容默爲得中 庶官數易 百務不舉 事私者爲智 事公者爲愚 徇俗者爲賢 特立者爲不肖 假使豪傑之士 含章蘊奇者 廁乎朝列 將必矛盾掣肘 不能施一策 況臣才疎病癩 言闕行孤 以殘根弱植 子子於羣非衆笑中 罪戾之不暇免 況可望少補於衰職乎 『전서』 권5 장5 후면3행-11행.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당시의 조신들이 얼마나 안일무사로 직을 옮겨다니며 녹을 축내고 있었는가를 율곡의 <復辭副提學啓>는 잘 보여준다.

근래에 기강이 서지 않고 사람들은 정해진 뜻이 없어 내외의 관직이 하루도 유지되지를 않습니다. 작은 일, 경미한 병만 있어도 문득 辭狀을 올려 몇 달에 옮기지 않으면 답답해하면서 늦었다 여깁니다. 어지럽게 얽혀 자주 바뀌니 職事는 전폐되었는데 창고의 녹은 끊어지질 않고 몸은 노상 한가하니 사대부가 구차하게 편안한 것이 오늘날처럼 심한 적이 없습니다.²⁹⁾

이쯤되면 조정에 일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직에 있는 신하가 별로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職事는 전폐되었는데 창고의 녹은 끊어지질 않고 몸은 노상 한가하니 사대부가 구차하게 편안한 것이 오늘날처럼 심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율곡은 이 유례없는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六條啓>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확실히 모두 다 사람을 가리기는 하지만 아침에 제수하고 저녁에 옮겨 자리가 따뜻해 질 겨를도 없으니 임무를 살피려 한들 그렇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비록 周公·召公·伊尹·傅說의 어짐과 재주라도 만약 오늘은 司徒를 제수하였다가 내일은 司寇를 제수한다면 업적을 이루지 못하고서 분주히 노고만 할 게 틀림없는데 하물며 賢才가 아님에 리까?

지금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병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혐의를 피하는 것입니다. 병을 이유로 사직하는 폐를 고치려면 신하들에게 실제에 힘쓰고 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교하시어 실지로 병이 아니면 사직서를 올리지 않게 하시고 가다가 병을 핑계하는 자가 있으면 드러나는 대로 엄하게 다스려 반드시 병이 난 지 열흘이 찬 후에 사

29) 近來綱紀不立 人無定志 內外之官 不能夙夜 小故微恙 輒呈辭狀 數月不遷 憊然遲之 紛紜數易 職事全廢 廩祿不絕 而身常得閒 士大夫之苟安 未有若今日之甚者也 『전서』 습유 권2 장19 후면1행-4행. 율곡 40세 을해년의 상소이다.

직서를 올리도록 하고 처음 열흘이 찬 후에 비로소 다시 사직서를 올리게 하시고 다시 열흘이 찬 후에 비로소 세 번째 사직서를 올리게 하십시오. 만약 한 부서에서 한 사람이 사직서를 올리면 다른 사람은 나란히 올리지 못하게 하시고 질병이 있으면 할 수 없이 나란히 올리게 하시면 반드시 한 부서가 모두다 入啓를 논의한 후에야 비로소 올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하면 병을 핑계하여 사직하는 폐단을 고칠 수 있습니다.³⁰⁾

칭병사직 후 다시 직을 받아 이직하는 풍조가 얼마나 심각하였던가를 잘 알 수 있다. 말은 사직이나 결국 그 누구도 물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교묘히 더 나은 자리로 옮겨다니기에 급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직을 맡은 조정 관료들의 풍조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울곡은 이와 같이 한심한 지경에서 물러나지 않고는 士의 지절을 지킬 수 없음을 통절히 느끼고 물러나기로 결단하였던 것 같다. 아니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조정의 기강을 바로 잡는데 털끝만큼이라도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연보에 이런 기록이 있다.

어떤 이가 '물러가기를 구하여 물러가게 되니 쾌적하다 할 만합니다. 다만 사람마다 모두 물러가기를 구하는 뜻만 가진다면 누가 국가를 부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선생이 웃으며 '만약에 위로三公으로부터 아래로 못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물러가기를 구하는 뜻을 가지게 할 수만 있다면 국가의 형세는 저절로 大道로 오르게 되니 부지하지 못할까 염려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³¹⁾

30) 今之授官 固皆擇人 而朝拜暮遷 席不暇暖 雖欲察任 其道無由 雖以周召伊傅之賢且才 若今日授司徒 明日除司寇 則必不能成績 只奔走勞苦而已 況非賢才乎 今茲數易 有二道焉 一曰呈病 二曰避嫌 欲矯呈病之弊 則下教羣臣 務實而不徇俗 非實病則不呈辭 間有託疾者 隨現科治 必病滿一句 然後始呈辭 初度滿一句 然後始許再呈 再度滿一句 然後始許三呈 若一司一員呈辭 則他員不得竝呈 如有疾病 不得已竝呈 則必一司僉議 入啓 然後始呈 如是則可矯呈病之弊 『전서』 권8 장18 후면4행-장19 전면3행.

31) 或曰 求退得退 可謂快適 但人人皆有求退之志 則孰有扶持國家者乎 先生笑曰 若使上自三公 下至庶僚 皆有求退之志 則國家之勢 自升大猷 勿患其不能扶持也 『전서』 권33. 장37 전면 5행~8행.

이 기록으로써 우리는 당시 조정에 그렇게도 칭병사직의 풍조가 만연하였지만 실제로 물러나려는 사람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 조정의 신하가 모두 직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한다는 직에 대한 의리를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그야말로 국가는 대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정이 이렇고 보면 율곡이 직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능력을 헤아리고 일의 기미를 보아 사직하였던 것은 바로 직에 대한 士의 節義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만이라도 그것을 실천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율곡이 직에 머무는 것을 어렵게 여겼던 또 다른 이유는 임금이 개혁의지가 없다는 점이었다. 결국 임금의 정치적의지가 가장 강력한 개혁의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선조는 율곡을 매우 총애했고 또 儒術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지만 율곡의 말을 쓰지는 않았다.

거듭한 사직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38세 8월에 율곡으로 돌아간 율곡에게 9월 또 홍문관 직제학을 제수하였다. 두 차례 사양하였으나 불허하므로 입조하여 사은하고 다시 <復拜直提學辭疏>를³²⁾ 올려 사양하였는데도. 선조는 물러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율곡은 직을 받고 충심으로 진언하였다고 한다. 그 진언들은 선조의 의지와 정치 행적이 율곡이 보좌하려는 뜻과 얼마나 거리가 있었나를 잘 보여준다.

신은 시골에 었더 있어 성학이 얼마나 성취되었는 지 모르웁니다. 오늘날 민생은 초체하고 풍속은 退敗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지경에 이르러 신은 성학이 날로 빛나기를 우두커니 서서 보고 있습니다만 끝내 효과를 볼 수가 없으니 속으로 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즉위하신 초에 대신들의 輔導가 마땅함을 잃어 언제나 근일의 규범을 끌어 儒者의 論을 배격했기에 지금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필부의 讀書躬行도 오히려 뜻이 濟世에 있는데 하물며 전하께서는 할 수 있는 바탕을 받으셨고 일국 백성의 주인이 되어 하실 수 있는 세를 잡고 계신데 어찌 두려워하며 스스로 분발하시는 뜻이

32) 『전서』 권5 장6-7.

없겠습니까?

항약은 바로 삼대의 법인데 전하께서 행하라 하셨으니 참으로 근대에 없는 경사입니다. 다만 법사에 본말이 있을즉 항약은 백성을 바르게하는 법입니다. 조정백관이 바름에 이르지 않고서 백성을 먼저 바르게한다면 본을 버리고 말을 다스리는 것이니 일은 기필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반드시 躬行心得하시어 베푸심이 조정에 미치면 政令이 모두 다 바름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백성이 감발하는 바가 있어 흥기합니다.³³⁾

요컨대 율곡은 당시에 풍속이 퇴폐하고 민생이 초체한 것은 결국 임금이 실천 궁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임금이 실천궁행하지 않으니 조정 백관의 기강이 서지 않고 조정의 기강이 먼저 서지 않으니 민생은 초체하고 풍속은 퇴폐하다는 것이다. 항약을 행하라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은 조정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니 율곡의 생각으로는 선조의 정사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10월 경연에서는 이렇게도 아뢰었다고 한다.

人君이 숭고한 자리에 처하여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면 善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반드시 아울러 들으시고 널리 들으시며(兼聽博聞) 善言을 가려 빈 마음으로 받아 들이신 다음에야 못 신하가 모두 스승이 되고 衆善이 임금의 몸에 합해져 그로써 德業이 높고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겸손하고 온화하며 물러나 양보하심이 下教에 나타나오니 公論을 따르지 않음에 이르십니다. 스스로는 옳고 남은 그르다 하신즉 도리어 남더러 그 누구도 나만 못하다 이르는 병을 가졌습니다. 신은 속으로 민망합니다. 삼공이 바로 아뢰고 싶어도 聖志를 거슬러 오히려 君德에 쫓겨 될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민망히 침묵하고 날만 보냅니다. 만약 성상의 뜻이 다스림을 구함에 있

33) 臣踰伏田里 未知聖學成就如何 今日民生憔悴 風俗頹敗 至於如此 臣件見聖學之日章而終不見效 臣竊怪焉 卽位之初 大臣輔導失宜 每引以近規 排儒者之論 故至今不善治耳 匹夫讀書躬行 尙且志在濟世 況殿下稟可爲之質 主一國之民 操可爲之勢 寧無惕然自奮之志乎 鄉約是三代之法 而殿下命行之 誠近代所無之慶也 但凡事有本有末 鄉約 正萬民之法也 朝廷百官 未底於正 而先正萬民 則舍本治末 事必無成 殿下必須躬行心得 而施及朝廷 政令皆出於正 然後民有所感發而興起矣 <행장> 『전서』 권35. 장11 전면7행-후면 6행.

다면 대신도 역시 반드시 다 말할 것이며 廷臣은 저마다 所懷를 펼 것입니다.³⁴⁾

自滿으로 善言을 받아들이지 않고 公論을 무시하는 宣祖의 결함이 울곡의 언사에 거의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다.

47세(임오, 1582) 정월 이조판서에 제수되어 세 번이나 계를 올려 사양 하였으나³⁵⁾ 허락되지 않았는데, 세 번의 계에서 모두 관리 임면의 임무는 자신의 능력에 부치는 직위임으로 감당할 만한 적당한 직임을 주어 분수에 따라 충성을 바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마침내 <삼계>에 이르러서는 비단 울곡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조판서의 정당한 직임을 수행할 수는 없었던 당시의 형세를 설파하고 있다.

옛날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은 國政과 世道로써 자기의 임무를 삼아 鑑別을 극도로 밝게 하였고 擢選을 극도로 공정히 하여 한 시대의 淸論을 주장하였고 郎僚는 다만 그 미치지 못한 것을 도울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館閣의 淸選은 한결같이 낭료에게 위임되어 다시 뜻을 둘 틈새조차 없으니 다만 미관 말직이나 注擬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임무를 삼는데 또한 전후를 올려다보고 돌아본 후 講託의 高下로써 輕重을 삼으니 그 중에서 公과 私가 반씩만 되어도 時論이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淸議는 郎僚에게 있고 長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는 冠과 신이 바뀐 것이어서 기강이 서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해당 관리가 각기 그 직을 잡고서 옳은 일로써 임금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록 은명이 위에서 나온다 하여도 公議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뒤집어 거슬러 그만두지 않아서 아첨하여 따르는 것으로 공경을 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두 해당부서는 다만 문서만 봉행하는 것으로 여겨서 벼슬을 내리는 명이 있으면 훌륭한 지 않은 지는 묻지도 않고 오직 임금이 명하니 바로 순종합니다. 이는 진소위 三旨宰相이라는 것입니다.

34) 人君處崇高之位 自以爲滿足 則善言何由而入 必也兼聽博聞 擇善虛受 然後羣臣皆爲我師 而衆善合於君身 德業以之崇廣矣 今殿下謙冲退讓 形於下教 而至於不從公論 自是非人 則反有謂人莫己若之病 臣竊憫焉 三公雖欲建白 恐拂聖旨 反爲君德之累 故悶默度日 若聖旨在於求治 則大臣亦必盡言 而廷臣各陳所懷矣 <행장> 『전서』 권 35. 장11후면 9행-장12 전면 5행.

35) <辭吏曹判書啓>, <再啓>, <三啓>. 『전서』권8.

이조에는 考功의 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考功하는 사람은 모든 관료의 부지런하고 태만함을 檢察하여 직에 맞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나타난 바에 따라 도태시켜 버려서 모든 관료들이 직을 받는데 아무도 감히 게으르고 소홀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銓曹가 다만 除授만을 관장하고 있을 뿐 考課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부서가 해이하고 대부분의 업적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폐단을, 수 십 년 내로 그 누구도 개혁할 줄을 몰라서, 지금 사람들은 귀에 편안하고 눈에 익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³⁶⁾

이판의 직임은 인사권인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공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임금의 명에 순종할 뿐 공의에 맞춰 옳게 일할 수 없고, 考功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당시 상황을 온 조정이 모두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권이 자리를 잃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의 기강이 설 수 있으며 선정이 베풀어 질 수 있을 것인가? 임금이 이러한 병폐를 개혁할 의지를 보여주었다면 울곡이 이러한 소를 올릴 리가 만무다.

이러한 형세에서 도저히 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하소하는 울곡의 啓辭는 너무도 嚴然하고 애절하다.

지금 신의 재주와 명망으로 舊誤를 개혁하여 바르게 돌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사 어리석은 신이 스스로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억지로 마음을 다하려 한들 그것이 위로 임금의 가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아래로 衆情에 맞습니까? 聖上께서는 사리에 밝으시니 고금을 역람하여 일개 迂儒가 나라의 政柄을 쥐었다가 禍敗를 면한 자를 보셨습니까? 하물며 신은 천성이 영

36) 昔之居是位者 以國政世道爲己任 鑒別極其明 揀選極其公 主張一時清論 而郎僚只補其所不逮而已 今則館閣清選 一委之郎僚 無復置意於其間 只以注擬微末之職爲己責 而亦復瞻顧前後 以請託高下爲輕重 就其中公私相半者 則時論稱善 故清議在於郎僚 而不在於長官 由是冠履倒置 不成紀綱焉 昔者 該官各執其職 正事格王 恩命雖出於上 而如不合公議 則必覆逆不已 不以阿從爲敬 今則咸以爲該曹只當奉行文書 如有錫爵之命 則不問臧否 而惟上命是順 此眞所謂三旨宰相者也 吏曹有考功之司 故昔之考功者 檢察百僚之勤慢 有不稱職者 則隨現汰去 故百僚奉職 莫敢怠忽 今則銓曹 只掌除授 而其於考課 不知爲何事 用是百司解弛 庶績皆敗焉 此等痼弊 數十年來 莫知釐革 時人耳恬目熟 以爲當然 <三啓> 『전서』 권8 장13 후면4행-장14 전면7행.

성하고 어두우며 본디가 인정과 몰태에 어둡습니다. 이제 孤根弱植으로 못 기룬과 조소 가운데 스스로 분발하여 어리석음을 바쳐 忠을 하려고 하면 장차 반드시 좌우에서 팔뚝을 끌어당겨 결코 補益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대열을 좇아서 俗例를 지키며 수행하고자 한즉 장차 위로는 나라를 저버리는 것이요 아래로는 배운 것을 등지는 것이니 살아서는 수치를 안게 될 것이요 죽으면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백 번을 생각해 보아도 결단코 供職할 수가 없습니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성상께옵서는 천지요 부모이시니 옆드려 바라웁니다. 아슬아슬한 말씀을 굵어 살피사 지극한 심정을 불쌍히 여기시어 신의 직을 바꾸십시오. 재주를 헤아려 관을 제수하시어 군신의 의를 온전케 하시옵소서!37)

이 소의 언사에서 우리는 직위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없다면 모르거니와 의식이 있고는 도저히 직을 맡아 일할 수 없었던 당시의 실정과 울곡의 고민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조정의 중신들에게 따돌림받고 임금의 말을 쓰러하지 않는 입장에서 법도대로 직을 수행할 수 없음이 너무도 분명하므로 사직하여 自守하려는 울곡의 결의가 너무도 절절하다.

거듭 벼슬을 사양했지만 38세에 홍문관 직제학을 제수받아서서 결국 직임을 맡아 직언을 거듭하였다. 선조의 만류가 하도 간곡하여 다소 희망을 가지고 머물어 보기로 했던 것 같다. 이 무렵 울곡의 출사에 대하여 그의 지기지우었던 成渾은 ‘儒者는 마땅히 임금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 만약 임금의 마음이 돌지 않으면 당연히 속히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한 자를 굶혀서 한 길을 떠는 것이니 유자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울곡은 이에 대하여 ‘이 말은 확실히 그렇다. 다만 임금의 마음을 어찌 잡자기 돌릴 수 있겠는가? 마땅히 서서히 정성을 쌓아 느껴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약 야트막한 정성으로 열흘

37) 今以臣之才望 其能革舊誤而反之正乎 假使愚臣不自度量 強欲盡心 其能上格宸衷 下愜衆情乎 聖上明燭事理 歷覽古今 曷嘗有一介迂儒持國政柄 而能免禍敗者乎 況臣天賦疎戇 素不諳人物態 今欲以孤根弱植 自奮於羣譏衆笑之中 效愚售忠 則將必左右掣肘 決無所裨益矣 如欲隨行逐隊 以遵俗例 則亦將上負國家 下負所學 生當抱羞 死不瞑目矣 百爾思之 決難供職 恭惟聖明 天地父母 伏願俯察危辭 矜憐至情 命遞臣職量才授官 以全君臣之義 <三啓> 『전서』 권8 장14 전면7행-후면6행.

이나 한 달에 효력을 물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문득 물러가는 것은 또 한 人臣의 의리가 아니다'라고 하였다(38). 自守의 도를 무척 중시한 율곡이지만 지기에게서조차 苦言을 들어가면서까지 될 수만 있다면 임금의 의지가 돌아서기를 기다려보려고 했던 것이 율곡의 마음이기도 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이야기이다.

율곡전서에 전하는 각종의 疏·啓들을 참조하면 율곡은 尸素노릇을 하지 않으면서 重職의 所任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너무도 부친다고 판단하여 번번이 사직서를 올리면서도 일단 직을 맡게 되면 그 직임에서 건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을 간곡히 아뢰었음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세(갑술, 1574) 되던 해 정월 우부승지로 승진했을 때도 만언소를 올려 당시의 폐단을 極陳하고 재앙을 막을 계책과 進德의 功을 말했다. <행장>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선조는 이 만언소를 보고 경탄해 마지 않았고 성혼은 이 말이 쓰이고 앉고는 국운이 관계된 것이라 하였다 한다.

율곡의 여러 疏·啓를 참조할 때 선조는 유학을 숭상하고 선정을 베풀려는 뜻은 있었으나 언제나 자신은 聖君이 될 자질이 없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實政에 옮기려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율곡은 아직 요순과 같은 경지에 있지 않더라도 요순이 될 마음만 지니고 있으면 일단 일을 시행하면서 요순의 경지를 향해 가는 것이지 요순이 되고서야 요순의 정치를 시행하려 해서는 잘못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하고 있으나 선조는 自省의 측면에서도 積弊를 개혁하는 일에서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게다가 앞서 인용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겸양을 하면서도 실은 강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서 신하들의 충언과 공론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이 농후했던 것 같다.

율곡이 임금의 사랑을 받고는 있었으나 거듭 간언을 올렸음에도 그 말이 쓰여지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행장>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38) <연보> 『전서』권33. 장41 전면 6행-11행 참조.

어떤 사람이 “공이 조정에 머문지 몇 달에 무슨 공업이 있습니까?”하고 물으니 선생은 “비록 국정을 잡고 있는 사람도 몇 달 안에 효력을 물을 수는 없거늘 하물며 말을 할 수 있을 뿐 시행할 수 없는 사람이리까?”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식자는 숙헌이 오래 머물고 있는 것을 꽤 의심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니 선생은 “언제나 天心이 거의 돌아 올 수 있으려나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거취를 결단하지 못합니다.”하였다.³⁹⁾

이 대화 속에는 기미를 보며 임금의 의지가 정해지기를 이제나저제나 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율곡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연보에는 위의 기록에 뒤이어 물러나야만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율곡의 심회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또 선생에게 이르기를 “뜻이 얹어지는 것을 붙잡고 위험한 것을 버팁에 있으면 비록 구차스러움을 겪어도 물러가서는 안됩니다.”하니 선생은 “구차하면 이는 자신을 굽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굽히고서 얹어지는 것을 붙잡고 위험한 것을 버티는 사람을 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어떤 사람이 “비록 크게 하는 바를 가질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 일에 따라 補益하는 바가 있어 危亡에 이르지 않게 한다면 이도 혹 한 길입니다.”하니 선생은 “이는 국정을 잡고 있는 대신의 일입니다. 대신은 이미 중임을 받았으니 당연히 위험을 보면 목숨을 아끼지 않아 물러가서는 안됩니다. 진실로 대신이 아니면 기미를 보아 행동하여 자신을 잃어서는 안됩니다.”하였다.⁴⁰⁾

나라가 얹어지는 것을 붙잡고 위험한 것을 버티려는 뜻이 아무리 간절하여도 自守의 도리를 잃게 되면 결국 얹어지는 것을 붙잡고 위험한 것

39) 有人問曰 公留朝數月 有何功業 先生曰 雖當國之人 亦不可責效於數月之內 況能言而不能施者乎 人曰 識者頗疑叔獻之久留也 先生曰 每冀天心庶或可回 是以不決去就耳 <행장> 『전서』 권35 장15 후면 8행-16 전면 1행.

40) 或又謂先生曰 志在扶顛持危 則雖涉苟且 不可退去 先生曰 苟且則是枉己也 枉己而能扶顛持危者 吾未之聞也 或曰 雖不能大有所爲 隨時隨事 有所補益 使不至危亡者 是或一道 先生曰 此當國大臣之事也 大臣已受重任 當見危授命 不可退去 苟非大臣 則見幾而作 不可失其身也 <행장> 『전서』 권35 장16 전면 1행-16 전면 6행.

을 버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니 自守의 道를 지키는 것만이 나라를 건지는 길이라는 율곡의 결심이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연보의 기록들을 통하여 선조가 자못 儒術을 좋아하여 율곡에게 마음을 두니 율곡은 자기에게 맡겨진 중요한 것(道)이 거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고로 맞지 않는 것이 있어도 오히려 되돌아 보고 연연하여 배회하며 차마 갑자기 물러가지 못하면서도⁴¹⁾ 기미를 잘못 간파하여 적시에 떠나가지 못하고 지나치게 머물게 되어 自守의 道를 잃지나 않을까 고심하는 율곡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다.

율곡이 去就에 이렇게 고심하였던 것은 去就에 있어서 中을 얻는 것이야말로 士의 節義이며 임금과 신하가 피차의 절의를 지킬 때 조정의 기강이 바로 서 백성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물러가기를 청하는 율곡과 선조 사이에 오고 간 다음의 대화는 去就 혹은 行藏에 있어서 율곡이 생각하는 臣義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준다.

다른 날 입시하여 선생은 스스로 진달하기를 “병이 많아 從仕할 수 없으니 물러가 조섭하게 하여 주옵소서”하니 임금은 “병이 그러하다면 또한 어쩔 수가 없다. 은거하는 게 가장 좋다. 고시에 '귀를 씻어 인간사를 듣지 않고, 푸른 솔과 벗이 되고 사슴과 무리짓는다' 하였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하였다. 선생은 대답하기를 “신은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의 은사는 인군과 접하지 않아 군신의 맺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잇을 수 있었고 또 몸이 건강하여 병이 없으니 아름다운 산과 좋은 물에서 자적 할 수 있었지만 신은 은혜를 매우 무겁게 받아서 발독에 있더라도 마음은 면류관에 매달려 있고 또 질병이 있으니 은거가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다만 바로 하는 일 없이 밥만 먹기가 어려워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였다.⁴²⁾

41) 蓋以上頗好儒術 傾嚮先生 先生自任之重 庶幾有爲故 雖有不合者 猶眷戀低徊 不忍遽退也 <행장> 『전서』 권35 장16 전면 8행-16 전면 10행.

42) 他日入侍 先生自陳多病 不能從仕 請退而調攝 上曰 病若如此 亦無可奈何 隱居最好 古詩曰 洗耳人間事不聞 青松爲友鹿爲羣 豈不樂乎 先生對曰 臣則有不然者 古之隱士 與人主不相接 無君臣之契 故可以相忘 而又身健無疾 自適於佳山好水 臣則受恩深重 故雖在吠畝 心懸冕旒 又有疾病 隱居何樂焉 只是難於尸素 故不得不退耳 <행장> 『전서』 권35 장20 후면3행-10행. 이 대화는 율곡이 39세(갑술·1574)에 사간원

율곡은 직을 받고 尸素를 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조정의 실정과 임금의 뜻을 보아 제대로 직을 수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되면 언제고 사직을 하였지만 임금이 선정을 베풀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다시 나아가 기다리며 뜻을 이루고자 했다. 대사간에서 물러난 후 곧 이어 제수된 우부승지를 비롯하여 다시 승지와 대사간을 모두 사양했지만 곧 이어 제수된 황해도 관찰사는 기꺼이 받아들였고 또 앞서 청주목사를 제수 하였을 때도 외직이라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받은 것을 보면 율곡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능력에 맞는 자리에서 그 직이 해야 할 정당한 일을 실제로 실현하는 것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40세(을해, 1575) 되던 해 3월 율곡은 병으로 황해도 관찰사를 사임하고 파주로 돌아왔는데 곧 다시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되어 상소하여 사직했으나 허락 받지 못하였다. 이에 4월에 입조하여 사은하고 다시 사직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이때 율곡의 출처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고 성혼조차도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숙헌 같은 출처는 옛날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율곡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출처는 확실히 한가지가 아니다. 나는 당초에는 확실히 직에 이바지할 뜻이 없었다. 산릉의 일(인순왕후의 장사)이 끝난 다음에 물러나려 하였는데 마침 주상께서 여러번 휴가를 주시고 그 직을 바꾸지 않으시는 데다 또 주상께서 슬퍼하시는 가운데 善端이 開發되어 전일과는 다르니 그래서 아직은 머무르면서 정성을 쌓아 만의 하나 幸을 바라는 것이다. 군자가 끝내 세상을 잊는다면 그만이지만 혹이라도 이 세상에 뜻이 있다면 이 음이 갇히고 양이 생겨나는 때에 어찌 탈만한 기회가 없겠는가?⁴³⁾

대사간에 제수되어 두 번이나 사양하였으나 윤택받지 못하다가 黃蠟의 일로 임금께 極諫하여 노여움을 산 후(임금이 후회하여 간언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드디어 병으로 다시 사직을 청한 것이다.

- 43) 出處固非一端 我當初固無供職之志 欲於山陵事畢後退去 而適自上累賜休告 不改其職 且主上哀疚之中 善端開發 異於昔日 故欲姑留積誠 以冀萬一之幸耳 君子果於忘世則已 如或留意於斯世 則當此錮陰生陽之時 豈無可乘之機乎 <행장> 『전서』 권35 장22 전면 1행-6행.

이 언급에 이르러 우리는 앞서 울곡이 내 세운 사직의 이유들 중병이나 학문의 모자람은 정작 절실한 이유가 아님을 알게 된다. 임금이 자신의 충언을 받아들여 道를 실현하려는 기미가 도무지 보이질 않으니 道의 실현에 아무 보익됨이 없이 俗例에 따라 직을 지키고 녹이나 얻는 것은 儒者의 도리가 아니므로 떠나고자 했던 것이다. 동시에 울곡은 道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정책을 임금이 받아들여 시행에 옮길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毀譽에 개의하지 않고 기꺼이 직에 종사하고자 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울곡은 부제학을 제수 받은지 여덟 달만에 병으로 체직되고 護軍에 제수되었는데 부제학을 체직했을 때 朴淳은 經席에서 언제나 울곡이 재주가 있고 현명함을 천거하였으나 선조는 울곡이 矯激하며 또 자기를 섬기려하지 않으니 억지로 잡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한다.⁴⁴⁾ 결국 임금이 善端이 개발되어 전과는 다르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기인 성혼에게조차 그러한 출처는 선비의 도가 아니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다시 출사를 하였지만 선조에게는 울곡은 여전히 矯激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울곡은 결국 41세(병자, 1576) 되던 해 2월 사직하고 울곡으로 돌아갔다. 이때 박순이 머무르라고 몹시 말렸으나 “서울 있는 지 일년에 한 권의 책도 읽지 못했으니 이렇게 乾沒해서야 일생을 그르칠까 두렵다”고 하였다 한다.⁴⁵⁾ 그동안 임금의 주변을 배회하며 희망을 걸고 꾸준히 기다려 보았지만 결국은 되지 않음을 알고 자신의 삶을 더 이상 그르칠 수 없다고 작정한 것 같다.

다시 右副承旨 大司諫 吏曹參議 全羅監司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병으로 사직하였고 10월 해주 석담으로 돌아가 청계당을 지었다. 12월에는 인순 왕후의 祥祭가 翌年 정월임으로 入京하였다가 兵曹參知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였다. 42세(정축, 1577) 정월에 석담으로 돌아와 宗族을 모아 <同居戒辭>를 짓고 司馬氏의 朔望儀를 거행하였다. 대사간을 제수하였으나

44) <행장> 『전서』 권35 장29.

45) <연보> 『전서』 권34 장3.

나가지 않았다. 아마도 은거의 뜻을 확고히 한 것 같다. 43세(무인, 1578)에는 은병정사를 짓고 정사의 북쪽에 주자의 사당을 擬立하였다. 3월 대사간을 제수하여 부르므로 나아가 사은하고 4월 율곡으로 돌아왔다. 5월에 다시 대사간을 제수하였는데 <辭大司諫疏>를⁴⁶⁾ 올려 사직하였다. 이 疏에서 율곡은 ‘병든 몸, 무능한 재능으로 국록을 훔치는 鄙夫는 될 수 없으니, 전일의 수고로움을 잊지 못해서 혹은 이름이 벼슬아치의 장부에 있어 전례에 따라 내리는 은총일량은 거두어 달라’고 하소하면서, ‘임금이 자신의 마음 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어 자신이 쓸 데 없음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 버려두어야 할 것인데 또 자기를 부르는 것은 아직도 실력을 드러내지 못한 바가 있다고 여겨서일테니 진실로 그렇다면 단지 몸에 벼슬을 내려 주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쓰고자 해서일 것이므로 자신에게 時弊를 구제할 計策을 물어 말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고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하였다. ‘재주가 있다면 병이 있더라도 절대로 초야에서 늙지는 않을 것이며 재주가 없어도 병이 없으면 힘껏 뛰어 다녀 여러 일에 작은 도움이라도 바치며 외롭게 편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사대부들은 병을 핑계로 물러나는 것을 고상한 행위로 여기고 일을 피하는 게 풍조로 되어 있고 오늘 관직에 임명되었다. 내일이면 사퇴를 하곤하여 자리를 옮겨다넘이 일정치 않아 모든 직위가 다 버려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당세의 큰 병폐’라고 한탄하면서도 ‘병을 핑계로 물러나고 일을 피하는 것은 자신이 유독 심했으니 一罰百戒로 내치는 것도 아름다운 명령이 된다’고 자신의 허물을 자책하고 있으나 끝내는 ‘時事를 물어 그 말을 쓰지 않으려면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하소하고 있어 율곡의 정치적 좌절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어세가 이렇게 강경함은 그가 이미 나아가지 않을 것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선조는 이 소에 대하여 ‘간장을 오래 비워 들 수 없어 체직하나 품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사실대로 편지로 써서 들려주는 것이 좋겠다’고⁴⁷⁾ 批

46) 『전서』 권6 장6 후면 7행-장11 전면10행.

47) <행장> 『전서』 권 35 장31.

示하여 울곡은<應旨論事疏>를⁴⁸⁾ 올렸다. 이에 승정원에서 다시 부를 것을 청하여 부르는 명이 있었고 6월 곧 또 대사간을 제수하였다. 울곡은 다시 사직소를 올렸다. 이 소에서 울곡은 출사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진술하였다.

첫째 : 성품이 경박하여 자중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고 성현의 글을 읽고 궁리하였으나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 뿐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한다.

둘째 : 뜻이 옛을 좋아하는 데 있어 時宜를 헤아리지 않고 망령되어 삼대의 정치를 다시 오늘날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조상들의 법도를 바꾸어 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뜻하여 일에 직접 시험해 보았는데 실로 엉성하고 벗어남이 많았다.

셋째 : 어리석어 일을 피하지 않고 말을 삼갈 줄 몰라 忌諱를 건드리고 국을 얹어 남의 미움을 사는데, 외톨이로 무리와 다르게 홀로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넷째 : 잔약한 기를 받아 병이 떠나지를 않아 부지런히 뛰어다녀 성에 보답하는 효과를 내고 허물을 씻을 수가 없다

이 소에서 울곡은 왕에게 자신이 선비일 수 있게 해 달라고 다음과 같이 간절히 하소하고 있다.

-상략- 선비는 세상에 태어나 나아가면 도를 행하고 물러나면 뜻을 지킵니다. 둘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도를 행하는 계책은 英才 碩德이 아니면 功이 백성을 덮어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뜻을 지키는 節操 같은 것은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좋아하면 거의 가능합니다. -중략-

전하께서는 이것(필자주 : 본고의 바로 앞에 요약한 불가한 네 이유)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도 거두어 부르시고 놔두지 않으시는 것이 어찌 신에게 일을 하라고 책임지우시려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약간 이름이 있고 분수와 의리를 거치나마 알고 있어 황야에 버리기가 아까운 듯도 하고, 공없이 녹을 먹는 것이 선비들의 습속이 다 그러니 옹하지 않음은 하잘 것 없는 신이 주 제님께 뜻을 구하려는 것이어서 은명을 잘못 가하시어 작록을 보전하게 하

48) 『전서』 권6.

시려는 것 같습니다. 신은 풍을 앓아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천은이 뼈에 사무치는 줄을 모르며 부귀가 즐길만 한 것임을 모르오리까! 그러나 영예로운 벼슬에 마음을 두지않고 谿壑에 었드려 입에 풀칠할 바탕도 없이 동에서 서에서 외롭게 지내는 것은 다만 힘을 펴 벼슬줄에 나아갔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부의 뜻을 구구하게 스스로 지키면서 이미 반생이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은총에 연연하여 머리를 고치고 얼굴을 바꾸어 기꺼운 마음으로 따를 바를 가리지 않고 먹을 거나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이지 참지 못할 바입니다. -중략-

전하께서 만약 편안하고 조용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삼가 전의 규범이나 지키고 일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면 조정에 있는 선비 중에는 노성하고 정성스러운 사람도 사람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니 신처럼 가별고 거칠고 일이나 좋아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당연히 배척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백 가지로 忖度해보아도 끝내 한 오라기의 길도 없으니 신이 일부터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와 사세가 그렇습니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한 나라에 光臨하시어 백성을 건지시기를 뜻하시니, 나라안의 한 사람이라도 그 적절한 자리를 얻지 못하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전하께서 당연히 불쌍히 생각하실 바입니다. 지금 신이 명을 받들어 직에 나아가려 한 즉 관을 병들게 하고 저의 지킴을 잃는 것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외직을 맡아 노둔함을 다 해 보려 해도 공문서를 다루는 노고를 병이 감당하지 못하며 임천에 처하여 허물과 잘못을 면하려 해도 연이어 부르시어 형적이 불안합니다. 나아가도 물러나도 길이 막혀 쳐다봐도 내려다 봐도 증좌를 지은 듯 두려워 오그라듭니다. 신이 제자리를 얻지 못함이 또한 너무도 심합니다.

생각하옵건대 전하는 하늘이요 땅이며 어버이십니다. 특별히 애련함을 드리우사 신의 관직을 풀어 넓고 한적한 들, 적막한 물가에서 자적하며 병을 조성하는 여가에 성현의 글을 더 읽어 精微한 숨은 뜻을 더 窮究하여 몸과 마음을 收斂하여 실천에 힘쓰게 해 주옵소서. 다행히 다른 날 하늘의 靈에 힘입어 기질이 변하여 쓸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면 전하께서 간곡히 이루어주시는 은혜는 몸이 부서지고 뼈가 재가 되어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근세의 제왕 중에서 오직 전하만이 이 말씀을 들어주실 수가 있을 것이며 오직 신만이 이 말씀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신이 임금을 사랑하기를 실로 아버지를 사랑하듯 하지만 進退에 의리를 두려워하여 服勤을 못합니다.49)

49) (상략) 士生斯世 進則行道 退則守志 二者之外 更無他歧 行道之策 非英才碩德 功覆

이 소는 규범이나 지키고 노성하고 유연하게 공없이 녹을 먹는 당시 선비들의 풍조에는 결코 머물러 하지 않아 나아가 道를 행할 수 없다면 결단코 물러나 自守함으로써 進退에 의리를 지키려는 율곡의 처절한 결의를 절절하게 보여준다. 특히 ‘공없이 녹을 먹는 것이 선비들의 습속이다 그러니 응하지 않음은 하잘 것 없는 신이 주재님께 뜻을 구하려는 것’, ‘豁壑에 엮드려 입에 풀칠할 바탕도 없이 동에서 서에서 외롭게 지내는 것은 다만 힘을 펴 벼슬줄에 나아갔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 ‘필부의 뜻을 구구하게 스스로 지키면서 이미 반생이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은총에 연연하여 머리를 고치고 얼굴을 바꾸어 기꺼운 마음으로 따를 바를 가리지 않고 먹을 거나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이지 참지 못할 바입니다.’, ‘백 가지로 村度해보아도 끝내 한 오라기의 길도 없으니 신이 일부러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와 사세가 그렇습니다.’ 등의 구절에서는 율곡이 얼마나 처절하고 엄연하게 의리를 실천하려고 애썼는가가 느껴져 숙연할 정도다. 그러나 이와같은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율곡은 물러나 자수의 도리를 지키는 것조차 뜻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進言은 쓰지 않으면서도 선조는 끊임없이 그를 불러내

斯民者 則不敢當也 若守志之節 則知恥自好者 亦可庶幾 (중략) 殿下非不知此 而猶且收召不置者 豈欲責臣以有爲乎 只以稍有名字 粗識分義 廢于荒野 似或可惜 而無功食祿 士習皆然 不應微臣僭欲求志 故曲加恩命 欲使保全爵祿耳 臣非病風喪心之人也 豈不知天恩之浹骨 富貴之可樂乎 然而灰心榮宦 屏伏溪壑 餬口無資 子子東西者 第以陳力就列 不能者止 匹夫之志 區區自守 已及半生 一朝係戀恩寵 改頭換面 甘心作餽噉之人 誠所不忍 (중략) 殿下如欲恬靜無爲 謹守前規 不求作事 則在廷之士 老成愿怒者 未爲乏人 如臣輕巖喜事者 尤當在擯斥之地 百爾村度 終無一線之路 臣非故辭 理勢然也 伏惟殿下光臨區宇 志濟黔蒼 四境之內 一夫之不獲其所 無非殿下所當惻念也 今臣欲承命就職 則瘵官喪守 如前所陳 欲求補外 庶竭駑鈍 則簿領之勞 病不能堪 欲處林泉 得免過惡 則徵召絡繹 形迹不安 進退路窮 俯仰踟躕 如負重罪 臣之不獲其所 亦已甚矣 伏惟殿下 天地父母 特垂哀憐 許臣解官 使得自適於寬閒之野 寂寞之濱 調病之暇 益讀聖賢之書 益窮精微之蘊 收斂身心 勉強踐履 幸於異日 賴踐之靈 變化氣質 得爲可用之器 則殿下曲成之恩 碎身灰骨 猶未足報 近世帝王 惟殿下可以聞此言 惟臣於殿下也 可以此言達 愚臣愛君 實如愛父 進退畏養 未獲服勤 <辭大司諫疏> 『전서』 권6 장28 전면 1행-3행, 장28 후면 9행-장29 전면5행, 장29 전면 8행-장30 전면 1행.

었던 것이다. 그래서 율곡은 ‘나아가도 물러나도 길이 막혀 쳐다봐도 내려다 봐도 중죄를 지은 듯 두려워 오그라듭니다.’라고 하소하면서 임금은 천지의 부모이니 제발 자신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고 애소하였다. 34세부터 줄곧 물러나고자 했던 율곡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임금의 뜻을 살폈으나 결국 되지 않을 줄 알고 물러나 다시는 나아가지 않으려는 의지가 결연했음을 알 수 있다.

대사간을 사직하는 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선조는 다시 이 조참의를 제수하였으나 율곡은 끝내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율곡은 이해 겨울 해주로 돌아갔다.

44세(기묘, 1579) 5월 대사간에 제수되었으나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50)를 올리고 사직하였다. 이 소에서도 율곡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올린 자신의 말이 쓰이지 않는 민망함과 국가를 근심하는 답답함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또 앞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은 본래 淺薄하여 聖明께 신임을 받지 못하여 종전의 연 이은 글과 거듭된 편지가 모두 공언으로 돌아가 말만 나불거린 풀이지 보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망하여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時論이 안정되지 못하여 士類가 흩어져 조정에 和氣가 날로 없어지고 여항에서는 뜬 논의가 구름처럼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신은 정말로 아프고 한스러워 집만 쳐다보며 속으로 탄식하였습니다만 또 조그마한 정성이거나 감히 전하께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혹 한밤중에 베개를 어루만지며 근심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⁵¹⁾

이상에서 우리는 前例와 俗例에 따라 그저 직을 받고 하는 일 없이 녹을 받던 당시 조정의 풍조와는 무관하게 正道로 봉직하여 국가에 보익하

50) 『전서』 권7 장2 전면 3행-장10 후면 4행.

51) 又伏惟念臣本淺薄 不能見信於聖明 從前連章累牘 盡歸空言 喋喋無益 故悶然中止 既而繼聞 時論不靖 士類泮渙 朝廷之上 和氣日消 閭巷之間 浮議雲興 臣誠痛恨 仰屋竊歎 又不敢以寸忱 仰達冕旒之下 時或中夜撫枕 耿耿不寐 『전서』 권7 장2 전면7행-후면 1행.

고자 했던 율곡의 고심과 임금이 자신의 말을 쓸 것인지 여부를 민감하게 가늠하면서 기미에 따라 때로는 결단코 물러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출처에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다시 벼슬을 받기도 하는 율곡의 모습을 보았다. 결코尸素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 신하된 율곡의 義理였다. 그러나 선조의 직책제수는 깊이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적임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조정의 기풍은 무사안일로 승진과 봉록만을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임금은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 외롭게 삼대의 선정이 실현되기를 갈망하면서 선비의 지절을 잃지 않으려고 고심하며 물러나고 나아가기를 거듭하던 율곡의 실천적 노력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3. 危機와 受職의 義理

율곡은 삼대의 理想政治를 실현하고자 했으므로 늘 更張과 改紀에 眷眷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임금으로부터도 矯激하다는 평을 듣게 되었고 스스로도 時宜를 모른다고 자인하면서 마흔 두어 살 무렵에는 결국은 물러나 自守의 도리나 지켜야겠다고 확고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율곡은 출사한 이듬해부터 줄곧 물러나고자 했다.

녹사를 위하여 출사한 율곡은 직위가 올라가자 분수에 과분한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또 자신의 건강과 학문과 경륜을 고려하지 않고 제수되었다고 생각되는 직을 그대로 받고 있을 수도 없었다. 과중하게 제수된 여러 겸직의 업무를 모두다 수행할 수가 없는데 그 직들에 그냥 머물어 있을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조정엔 기강이 없고 사대부의 대부분은 무사안일하게 녹만 허비하며 자리를 옮겨다니고 임금은 개혁의 의지가 없어 일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 그대로 머물어 있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율곡이 출사초기부터 얼마나 거취에 고심하였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다급한 지경이 되면 율곡은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의리로서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울곡은 비록 自守의 도를 지키고자 물러났으나 인정상 사양할 수 없는 경우나 혹은 국가가 위기에 당면했을 때는 일단 다시 임금을 보필하였다.

거듭 강경하게 벼슬을 사양하던 울곡은 45세(경진, 1580) 12월에 대사간으로 불러 나아가 사은하고 입대하였다. 그 이듬해에 올린 <辭大司諫疏>⁵²⁾에 의하면 그때 임금이 편찮았음으로 覲省하려는 犬馬之情으로 감히 사퇴하지 못했는데 임금을 뵈자 감동과 사모의 정이 더욱 깊어 분의를 헤아릴 겨를이 없이 중임을 맡고 말았다고 한다.

울곡은 다시 46세(신사, 1581) 3월 병으로 세 번이나 사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자 나아가 사은하고 또 사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6월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특진하였는데 두 번 사양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행장>에 의하면 이때 울곡은 자신이 떠나면 동서가 다시 합할 가망이 없어지니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고 한다.⁵³⁾ 동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正言 尹承勳을 배척한 일로 울곡은 양사의 상소로 대사헌에서 체직되었는데 이 때에도 '내가 동서를 타파하고 선비들을 한데 뭉치게 하려고 하는데 시속의 무리들은 스스로 자기 주전만 옳다고 하여 차라리 나라일을 그르치려고 하니 내가 만약 물러가면 이 시국은 더욱 분열될 것이므로 꼭 참고 물러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한다.⁵⁴⁾

그러나 울곡은 46세 9월에 예문판제학과 사간원 대사간을 겸하게 되자 <辭大司諫疏>⁵⁵⁾를 올려 동·서를 타파하여 선비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인데 이에 진력하였으나 진정시키지 못하였으니 言責의 중임을 맡을 수는 없는 일이요 田里로 돌아 가자니 성군을 차마 이별할 수 없으니 여니 벼슬로 옮겨 달라고 하소하였으나⁵⁶⁾ 허락받지 못하

52) 『전서』 권7 장23 전면 11행-장26 전면2행.

53) 『전서』 권35 장35 전면 2행-3행 36장 전면 참조.

54) 『전서』 권35 36장 전면5행-7행.

55) 『전서』 권7 장23 전면 11행-장26 전면2행.

56) <연보>에는 전말이 조금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6월에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을 제수 받고 두 번이나 사직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고 예문관 제학을 겸하게하여 사직했으나 허락되지 않았고 8월에 체직되었다가 9월에 대사간에 제수되어 사직했

다가 병으로 체직되었다.

율곡은 물러나 自守의 道를 고수하려던 자신의 의지를 일시 접어두고 동서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44세 5월에 대사간을 제수받고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⁵⁷⁾를 올려 직은 사양하였지만 동서 붕당의 실상과 폐해의 심각성과 그 해결 대책을 간곡히 개진해 올린 바 있다. 또 7월에는 백인걸의 상소를 빌어 자신의 계책을 임금께 다시 개진하였다(<代白參贊仁傑疏>⁵⁸⁾). 백인걸은 동서의 당파를 한데 뭉치게 하는 계책을 적극 논의하여 상소하였는데, 상소를 올리려 할 때 그 문장이 자기 뜻에 있는 것을 다 말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율곡에게 글을 고쳐달라 하니 율곡이 죽을 임시에도 나라를 걱정하는 그의 뜻을 고맙게 여겨 그의 의견대로 고쳐 주었다고 한다.

동서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직을 바꾸어 달라고 사직소를 올린 이후에도 율곡은 <陳時弊疏壬午>⁵⁹⁾ <陳時事疏>⁶⁰⁾등의 疏를 올려 다른 時弊와 아울러 동서 붕당의 폐해와 대책을 거듭 간곡히 개진하였다.

율곡의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⁶¹⁾에 나타난 바 율곡이 파악하고 있는 당시 붕당의 실제와 위기는 다음과 같다.

심의겸은 ‘악을 미워하여 변통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 젊은 날 김효원의 불미한 일을 계속 용서하지 못하여 청직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였고 김효원은 官의 진로를 얻은 후에 심의겸의 과실을 의논하여 말했는데 둘 다 사감이 있어 그러한 것이 아니었으나 방관하는 자들이 그 실정을 깊이 究明하지 않고 쓸 데 없이 두사람의 나쁜 점을 번갈아 말했는데 불평을 가진 무리들이 두 사람을 이간하여 점점 뚜렷하게 붕당의 조짐이 생기게 되었다. 율곡은

으나 허락되지 않다가 병으로 체직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57) 『전서』권7 장2 전면 3행-장10 후면 4행.

58) 『전서』권7 장10 후면 5행-잔15 후면 2행.

59) 『전서』권7 장27 전면 6행-장38 전면 7행.

60) 『전서』권7 장40 후면 3행-장50 후면 5행.

61) 『전서』권7 장2-장10.

을해년(선조8, 1575, 율곡 40세) 홍문관에 있으면서 그 사실을 직접 보고 이것이 후일 화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노수신과 의논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아 경연에서 상달하여 두 사람을 모두 외직으로 내보냈는데 율곡이 신병으로 물러나고 세상일이 그릇되어 어찌할 수 없게 되자 의논하는 이들이 김효원을 내보낸 것은 율곡의 잘못이라 하였고 말 꾸며내기 좋아하는 이들이 동서의 설을 만들어 내어公私의 득실을 막론하고 심의겸을 편드는 이를 서인이라고 김효원을 편드는 이를 동인이라 하여 조정의 벼슬아치들은 용렬한 사람이 아니면 모두 동서로 지목하는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선배 사류가 다 심의겸에게 붙는 것도 아닌데 모든 선배를 다 심의겸의 문객으로 몰고 후배 사류가 모두 김효원에게 심복하여 영수로 추대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후배를 다 김효원의 문객으로 몰고 있고 아무도 이것을 중재하여 화합시키지 않아 정세는 만 섬 들이 큰배를 풍파에 띄워 놓고 한 사람도 키를 잡지 않고 사람마다 노만 저어 닿을 곳이 없는 꼴이 되어 버려 그 종말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율곡은 이렇게 말했다. 즉 심의겸이나 김효원이 모두 옳기도 하고 모두 그르기도 하다. 그런데 국가의 치란과 백성의 안락과 고난이 심의겸의 진퇴에 달린 것도 아닌데도 시배들이 눈을 부릅뜨고 심의겸을 소인으로 모는 것은 심의겸이 다시 벼슬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뜻이 있고, 국시를 억지로 정하는 것은 서인을 모두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동인이 옳고 서인이 그르다고 말하게 한 다음 수용하여 벼슬을 주어 자기들에게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인 것이라는 것이다.

율곡은 한 번 동서 양편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은 후로는 앞뒤를 돌아보고 좌우로 견제하면서도 저편에서 이쪽을 해치려 하지 않는가 두려워하므로 남은 힘이 다른 일에 미칠 수 없게 되니 백성은 날로 궁핍해져 바로 잡아 구할 길이 없게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설사 동인이 군자라는 이름을 얻고 서인이 소인이란 말을 듣는 다해도 그것이 사방 백성의 생계가 쪼들리는데 무슨 보탬이 되느냐는 것이다.

율곡은 선조에게 동서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대저 조정이 안정되고 국론이 하나가 되는 데는 두 길이 있습니다. 군자가 임금의 신임을 얻어 간하면 행하고 말하면 들어 모든 관료가 봉직하여 이론이 없으면 이는 썸으로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인이 임금의 신임을 얻어 피가 행해지고 계책이 이루어져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 눈으로 말하게 되면 이는不善으로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명께서 해가 중천에 있는 것과 같으니 확실히 소인이 허물짓고 간사를 부리지는 않으나 또 군자가 도를 행한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소인이 허물짓고 간사를 부리지 않고 군자가 또 도를 행하지 못하면 사람마다 말이 있어 시골시골 정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나라는 어느 代고 소인의 화를 입어 불선으로 하나로 돌아가지 않은 적이 없는 즉 이미 익히 보고 들었습니다. 전하께옵서는 왜 한 번 군자로 하여금 뜻을 얻어 이 代로 하여금 선으로 하나로 돌아가는 盛事를 보게하지 않으십니까?

엿드려 바라옵니다. 전하께서는 신의 이 疏를 公卿大臣에게 내리시어 그들로 하여금 헤아리고 의논하게 하십시오. 만일 신의 말이 옳다고 하면 조정의 벼슬아치들에게 하교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동서를 세척하여 다시는 구별하지 말게 하십시오. 오직 賢才면 쓰고 不賢 不才면 버려 같은 조정의 선비와 벼슬아치들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쳐 다시는 의심하고 막힘이 없게 하십시오. 흐린 이는 내치고 맑은 이는 드날려서 조정의 기강을 整肅히 하시고 혹 자기의 의견을 치우치게 주장하여 公議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재를 가하여 억누르십시오. 혹 꼭 交構하여 말을 만들고 일을 만들려는 자가 있으면 배척하여 멀리 하십시오. 대저 이와같이 하신다면 士林의 다행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신의 말이 그르다고 하면 또한 모름지기 악을 비호한 죄를 드러내 놓고 가하시어 길이 거두어 銓敍하지 마시면 또한 국시를 정하는 데 일조가 될 것입니다.⁶²⁾

62) 夫朝廷之靖 國論之一 亦有二道焉 君子得君 諫行言聽 百僚奉職 莫有異論 則是以善歸一者也 小人得君 謀行計遂 箝制人口 道路以目 則是以不善歸一者也 當今聖明 如日中天 固無小人售姦者矣 又不聞君子之行道者也 小人既不售姦 君子又不行道 則宜乎人各有言 器器不定也 近來 國家無世不被小人之禍 以不善歸一者 則聞見已熟矣 殿下何不一使君子得志 使斯世得見以善歸一之盛事乎 伏願殿下以臣此疏 下于公卿大臣 使之商議 如以臣言爲是 則下教朝紳 使之洗滌東西 不復甄別 惟賢惟才則用之 不賢不才則舍之 同朝之士舉 皆一心徇國 無復疑阻 激濁揚清 整肅朝綱 而其或偏主已見不從公議者 則裁而抑之 或有必欲交構 造言生事者 則斥而遠之 夫如是則士林之幸可勝道哉 如以臣言爲非 則亦須顯加庇惡之罪 永不收叙 亦定國是之一助也 『전서』 권 7 장9 전면2행-후면 6행.

국가가 다급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비록 감당할 수 없겠다고 생각되는 일일지라도 감당하는 것이 또한 의리라는 율곡의 실천적 결단은 그가 병조판서를 제수 받고 그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명백히 드러난다.

율곡은 47세(임오, 1582) 되던 해 10월 遠接使의 명을 받고 詞章에 주력하지 않았고 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이 그 소임을 맡으면 혹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키게 될지도 모른다고 사직을 간청했으나 선조의 윤허를 얻지 못하여 결국 원접사의 소임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11월 국경에서 詔使를 伴送하고 12월에 북명하자 병조판서를 제수받게 되었다.

율곡은 병조판서라는 직책은 군정이 닳이지 않고 武備가 허술하고 국중과 변방이 공허하고 군사를 충족하는 대책이 없는 현실정에서 백면서생이 병든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소임이 아님을 하소하여 사직했으나⁶³⁾ 허락받지 못했다. 48세(계미, 1583) 정월에 다시 <呈病出仕後復辭兵曹判書啓>를 올려 병이 심해졌음과 문형을 잡고 또 병조를 맡는 문무 중임이 한 사람이 겸할 바가 아님을 하소하여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선조는 兵政의 미비를 은근히 근심하며 책임자가 없음을 한탄해 왔는데 율곡이 늘 更張과 改紀에 眷眷하니 기특한 운영의 궤를 낼 수 있다면 流弊를 모두 개혁하고 養兵의 규범을 만들라 하였다. 그때 北胡가 침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율곡은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였다고 한다.⁶⁴⁾ 사양하지 못했을 뿐더러 다시 북호가 침입하였을 때 율곡은 군마를 징발하여 배분하였는데 일을 먼저 시행한 후 윤허를 얻어 뒤에 탄핵을 받기까지 하였다. 즉 북호 이 만 여 명이 종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관가에 戰馬가 없어서 갑자기 마련할 수가 없었기에 율곡은 乙卯倭變때 전사들이 서로 말을 빼앗던 일을 경계하고 이로 말미암아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근심하여, 군대를 뽑은 다음 삼등 이하에게는 말을 바치도록 하고 대신 군역을 면제해 주며 그 말은 일·이등에 뽑힌 사람에게 주었다. 처음에는 啓

63) <辭兵曹判書啓> 『전서』 권8, <呈病出仕後復辭兵曹判書啓>, <復辭兵曹判書備邊司有司堂上啓> 『전서』 습유 권2.

64) <연보> 『전서』 권34 장29 및 <被劾辭兵曹判書疏-三疏> 권7 장52 후면 2행-장53 후면9행 참조.

하여 이 일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응하는 자가 적을까 염려하여 먼저 명령을 내려 모집해 보았더니 말을 바치는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는데, 전사의 출정시기가 임박하여 시기를 늦출 수 없으므로 마침내 말을 나누어 주고 나서 아뢰어 임금의 허락을 받았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어느날 변방의 급한 보고가 있어 임금이 울곡을 불러는데 울곡이 眩暈症을 참고 나오다가 승정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병이 더하여 內兵曹에 들어가 누운 일이 있었다. 이에 삼사에서 권력을 전횡하고 교만하여 임금을 업신여겼다고 탄핵하였다. 울곡은 복호의 침입이 급한 지경을 모면하자 그해 윤이월에 이미 <復辭兵曹判書備邊司有司堂上啓>⁶⁵⁾를 올려 그만 물러날 것을 청한 바 있었다. 병날 조짐과 직무의 중대성을 하소하여 다시 사직을 청하여 議臣의 말석에 참여하여 분수대로 충성을 바치게 해주시면 공사간에 다행이겠다고 간청하였으나 선조가 윤허하지 않았다. 삼사의 탄핵이 있게 되자 울곡은 죄를 자인하고 사직소를 올려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바로 잡을 것을 하소하였다. 선조는 여전히 허락하지 않았다.⁶⁶⁾ 울곡은 이에 다시 다섯 번이나 거듭 상소하여 공론을 무시하고 사사로이 은혜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복방의 형편상 중직을 오래 비워둘 수 없음을 하소하였으나⁶⁷⁾ 선조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입궐하여 뵈고 다시 죄를 물어 판정하여 줄 것을 청하는 계를 올리니⁶⁸⁾ 그 뜻을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중직을 오래 비워둘 수 없어 할 수 없이 체직하였다고 한다.⁶⁹⁾ 울곡은 6월 울곡으로 돌아갔다.

성혼의 伸辨 상소에 '말을 바치고 방어에 나가는 것을 면해 준 것은 명을 청하지 않고 명을 내렸으니 확실히 죄이기는 하지만 國柄을 專擅하라고 말하였으면 죄가 아니라'고 하였다.⁷⁰⁾ 울곡이 선조로부터 國柄을 專擅

65) 『전서』 「습유」 권2 장24 전면 4행-후면 3행.

66) <被劾辭兵曹判書疏> 『전서』 권7 장50 후면 6행-장51 전면11행.

67) <被劾辭兵曹判書疏再訴>, <三疏>, <四疏>, <五疏>, <六疏> 『전서』 권7 장51 후면 1행-장56 후면 6행.

68) <六疏後請罪啓>, 『전서』 권8 장23 후면7행-장25 후면2행.

69) <연보> 『전서』 권34 장33-35.

70) <연보> 『전서』 권34 장37전면11행-후면 1행.

하도록 이미 허락을 받았으니 군마를 징발하여 나누어주는 일을 굳이 허락받지 않아도 죄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北胡가 쳐들어와 전투가 눈앞에 닥친 상태에서의 조처였으므로 출정시기를 늦추면서 한가하게 임금의 허락을 받을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울곡은 이미 국병을 전단하라고 허락을 받았으므로 실정상 보다 효율적인 수순을 밟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울곡은 북호 침입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국가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순을 밟다 보니 현훈증이 발미가 되어 죄를 덮치게 된 셈이다.

울곡은 여섯 번이나 소를 올려 시종 공론에 따라 죄줄 것을 청하였다.

이때 올린 여섯 편의 소 및 청죄계에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고 선비의 지절을 지키고자 한 울곡의 뜻이 잘 나타나 있다.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고 망령되나 거칠게나마 군신의 의는 들었습니다만 모책이 얕은 연고로 이렇게 큰 죄에 빠졌습니다. 법대로 죄를 받는 것은 신이 실로 달게 여기지만 요행이 구차하게 면하는 것은 본의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공론이 있어 날마다 엄한 꾸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를 사사로이 굽히시어 감싸시고 끝내 윤택하지 않으시니 신은 참으로 失心하여 죽고 싶어도 죽을 곳이 없습니다. 엎드려 애걸하옵니다. 乾剛의 특단을 내리시어 신의 죄를 바로잡으시어 조정의 기강을 엄숙히 떨치시어 衆情을 시원하게 하시면 참으로 다행이라 여기겠습니다.⁷¹⁾

전에 이르기를 ‘禮·義·廉·恥’ 이것이 이른바 四維이니 사유가 펼쳐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兵官은 없어도 되지만 사유는 없어서는 아니됩니다.

신은 본디 가볍고 영성하고 우활하고 졸하여 세상 쓰임에 적합치 않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재주 아님을 알아 丘壑에서 늙는 것을 달게 여겼습니다만,

71) 臣雖至駭極妄 粗聞君臣之義 只緣謀淺 陷此大戮 爲法受罪 臣實甘心 僥倖苟免 非臣本意 有罪不治 何以爲國 賴有公論 日俟嚴譴 而恩私曲庇 竟未允許 臣誠隕心 欲死無地 伏乞乾剛特斷 正臣之罪 振肅朝綱 以快輿情 不勝幸甚 <被劾辭兵曹判書疏>, 『전서』 권7 장51 전면 7행~11행.

다행히 聖明을 만나 왕골과 기령도 버리질 않으시니 잘못 은혜를 자주 내리 시어 아주 도망가지 못하였는데 한 번 籠榮에 매이니 혼미하여 돌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일을 구분하여 죄를 냄에 있어 움직이면 문득 適宜함을 잃으니 分義를 헤아리면 당연히 처음 은거하려던 마음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만 나라에 일이 많고 새로 詔使를 겪고 또 胡變을 당하니 물러갈 틈이 없어서 힘쓰고 힘쓰면서 머무적거려 밝은 조정을 더럽혔으니 모습을 돌아보면 스스로 부끄러운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일을 망쳐 공론에 죄를 얻고 있음에리까! -중략-

옛과 지난날의 人臣을 죽 살펴보면 공론을 배격하여 못사람의 노여움을 사고서 임금에게 총애를 얻은 사람은 아침으로 총애를 얻는 嬖臣이 아니면 필시 벼슬을 잃을까 겁내는 鄙夫였습니다.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고 고루 하지만 구구하게 스스로를 지키오니 실로 감히 폐신과 비부로 자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근심하고 경황이 없어 명을 받들지 못하오니 신의 죄는 이에 이르러 더욱 무겁습니다.⁷²⁾

아아 전하께서는 신을 소인으로 여기십니까? 군자로 여기십니까? 소인이라고 여기신다면 마땅히 내어 쫓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이니 어찌 남의 말을 기다리겠습니까? 만일 군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고금천하에 어찌 죄를 지고 탄핵을 받으면서 나아가기를 쉽게 여기고 물러나기를 어렵게 여기는 군자가 있겠습니까!⁷³⁾

울곡이 이렇게 거듭 사직을 간청하며 공론에 따라 자신을 죄줄 것을 간청하였다. 비록 임금이 사직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공론을 무시하고 임

72) 傳曰 禮義廉恥 是謂四維 四維不張 國乃滅亡 兵官可無 四維不可無也 臣本輕疎迂拙 不適世用之人也 自知非才 甘老溝壑 幸際聖明 不遺菅蒯 誤恩屢下 不敢終逖 一縻籠榮 迷不知返 方物出謀 動輒失宜 揣分揆義 當尋遂初 只緣國家多事 新經詔使 又值胡變 無隙可退 黽勉遲徊 滓穢明廷 顧影自慙 爲日已久 況今僨事 得罪公論(중략) 歷觀古昔人臣排公論犯衆怒而得寵於君上者 若非佞幸嬖臣 則必是患失鄙夫 臣雖至愚極陋 區區自守 實不敢以嬖臣鄙夫自處 用是憂惶 不敢承命 臣罪至是而尤重矣 <三疏>, 『전서』 권7 장52 후면 9행~장53 후면 5행.

73) 嗚呼 殿下以臣爲小人耶 爲君子耶 如以爲小人 則當斥逐之不暇 豈待人言 如以爲君子 則古今天下 寧有負罪耐彈 易進難退之君子乎 <四疏>, 『전서』 권7 장54 전면 8행~10행.

금의 뜻을 따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공론을 따르는 것이 곧 조정의 기강을 세우는 길이요 군자가 지절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울곡은 공론에 죄를 얻은 자신을 국법에 따라 죄를 주어 직을 깎아서 복도에 종군하거나 혹은 白衣로 隨行시켜 謀臣의 말석에 있게 하면 자신의 죄도 다스리고 자신의 계책을 써 충성을 바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⁷⁴⁾ 선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울곡은 사직하고 석담으로 돌아 갔다.

9월에 判敦寧府事를 제수 하였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이조판서를 제수하여 상소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재촉하여 불렀다 10월에 부름에 응하여 나아가 사은하고 다시 상소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벼슬을 쉬고 田里로 물러나 유생들과 絃誦을 익혀 聖德을 歌頌할 수 있게 해주기를 간청하였다. 만일 하잘 것 없는 사람도 버리지 않고 쓰시려는 게 뜻이라면 議臣의 말석에나 두어달라고 하소하였다.

이듬해(갑신, 1584, 49세) 정월(16일) 울곡은 병으로 京城 大寺洞 寓舍에서 죽었다.

4. 결

본고는 울곡의 <年譜>, <行狀>, <啓>, <疏> 등을 통하여 울곡의 거취와 그가 지키고자 했던 士의 志節을 규찰해 본 논문이다.

울곡은 13세에 진사 초시, 21세에 한성시, 23세 거울에 별시에 합격하고, 29세 7월에 생원시 및 진사시 8월에 명경과에 급제하여 호조좌랑으로 관직에 나아가기 시작하여 47세에 병조판서로 그의 환로를 마감하였다.⁷⁵⁾

애초에 녹사를 목적으로 벼슬하였던 울곡은 출사한 이듬해 11월 正言

74) <六疏>참조.

75) 48세 9월 이조판서를 제수받았으나 상소하고 사직하였으나 선조는 윤택하지하지 않고 다시불렀으므로 10월 나아가사은하고 다시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나 다음해 정월 열셋새날 사망하였으므로 실제로는 병조판서로 관직생활을 마감했다고 할 수 있다.

이라는 요직이 주어지면서부터 職分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孟子的 官職授受觀을 신봉하였던 율곡으로서는 요직을 가족부양의 방편으로 삼아 그대로 머물수가 없었던 것이다.

녹사에 적합한 낮은 직으로 바꾸어 달라는 율곡의 하소와는 달리 율곡은 점차 더욱 중직으로 올라 갔다. 녹사로 벼슬을 하였다고 겸양하였지만 율곡은 자신의 학문과 경륜이 좀더 깊어지고 임금의 개혁의지가 확고하다면 삼대의 이상정치를 실현하기를 소망하였다. 그런데 당시 조신들의 在職風潮와 임금의 의지는 율곡의 정치적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결국 율곡은 직을 제수 받을 때마다 출처를 고민하며 사직소를 올릴 수 밖에 없었고 그러면서도 부단히 임금의 의지를 살폈다.

필자에게는, 필자가 이 논문에서 규찰한 바 율곡이 그의 사직소에서 보여준 출처의 자세, 즉 출처에 있어 선비의 지절을 잃지 않으려는 결연한 의지와 그 실천적 결단은 오늘날 소위 인문학을 하는 지식인이라는 명목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되비쳐 보게 하는 두려운 충격이었다.